

政策協議會시리즈 3

1980. 5

畜産物 價格政策의 課題와 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이 책자는 지난 4월 25일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이 主擧한 畜産物價格에 관한 政策協議會의 發表論文과 討議內容을 간추려 엮은 것이다.

「畜産物 價格政策의 課題와 方向」이란 主題로 열린 이번 政策協議會는 農水産部가 지난 3월 15일과 4월 15일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을 連動價格制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이 制度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畜産政策 전반에 관한 各界의 의견을 청취하여 政策樹立에 참조키 위한 것이었다.

이날 協議會는 政府當局, 學界, 言論界, 生産者團體, 消費者團體 등 各계 대표 20명과 100여명의 出席者가 참석하여 상오 10시부터 하오 6시 30분까지 進行되었다. 상오에는 開會式에 뒤이어 3편의 주제논문 발표가 있었고, 하오에는 발표논문을 바탕으로 討議를 전개, 예정시간보다 1시간 30분을 넘겨가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畜政全般에 관한 갖가지 의견이 開陳되었다.

本 研究院에서는 이날의 政策協議會 結果를 보다 널리 알려 實務와 研究에 참조토록 하기 위해 이 책을 펴낸다.

目 次

머 리 말	
討議內容要約	1
主 題 發 表	
肉類價格政策의 改善	5
物價政策과 畜產物價格	14
肉類價格과 畜產物需給	21
討 議	36
附 錄 1. 開 會 辭	71
2. 參加者名單	74

討議內容要約

畜産物 生産 및 供給

○ 쇠고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量을 싼값으로 계속 輸入해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國際市場의 需要는 계속 증가하지만 生産國들의 供給은 쉽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價格은 오르고 交易量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國家經濟의 次元이나 世界資源事情을 감안할 때 國內畜産賦存資源을 活用하여 畜産물의 供給量을 늘림으로써 國內自給을 도모해야 한다.

○ 自給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長期的인 生産基盤이 造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의 과감한 投資가 있어야 하고, 生産者價格을 지지해 줌으로써 生産意慾을 고취해야 하며, 품종개량, 초지조성, 사양관리 등 技術革新이 병행되어야 한다.

○ 經營規模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生産費를 절감해야 한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육 등 자금지원이 전 농가에 분산·살포될 것이 아니라 專業農家 이상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농가의 소규모 畜産도 農家所得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保護策이 있어야 한다.

○ 畜産振興基金은 生産者와 消費者를 위하여 그 용도와 금액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 生産者의 제일 큰 고충은 飼料問題인데 돼지의 경우 생산비의 75%를 사료가 차지하므로 草飼料, 효소사료 등을 이용하여 사료의 자급도를 높이고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飼料의 供給과 價格의 安定을 해야 한다. 飼料工場에서는 濃縮사료만 만들고 강피사료는 직접 생산자에게 배당하여 생산자가 직접 사료를 배합하게 함으로써 流通費用을 줄여야 한다.

畜産物 消費 및 需要

- 國民營養立場에서 볼 때 동물성 단백질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國民所得이 증가됨에 따라 畜産物 需要는 더욱 늘어날 展望이다.
- 돼지는 안팔려서 상당량을 버리든가, 헐값에 팔고 있는데, 쇠고기는 모자란다고 輸入하는데 문제가 있다. 쇠고기 輸入을 하지말고 쇠고기 값을 좀 올림으로써 쇠고기 需要가 돼지, 닭고기로 代替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 生産도 늘어나고, 돼지, 닭 등 다른 畜産도 살 수 있다.
- 肉類消費는 대부분 高所得層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低所得層 消費者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적절한 保護對策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꼬리나 내장 등 부산물이라도 싸게 공급하여 저소득층도 먹게 해야 한다.
- 쇠고기 선호경향을 해소하고 相對的으로 돼지, 닭고기 등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리법 등 소비자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消費者團体が 強化, 育成되어 중간상인의 횡포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畜産物 流通의 問題와 改善

- 가축시장, 도축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각 유통단계에서의 혼란은 生産者와 消費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러므로 政府는 가격만 統制할 것이 아니라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不當等級, 不正計量, 混肉販賣, 非衛生的인 枝肉去來 등 不公正去來를 없앴으로써 生産者와 消費者를 保護해야 한다.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자에게 도축권을 줌으로써 직접 직매장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 畜産物의 포장, 규격화, 등급화를 실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需要를 늘리고, 低所得層도 部位別 價格에 따라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급의 과잉이나 부족시 供給量을 조절하기 위해 收買, 備蓄制度가 확립되어야 하고 收買, 備蓄을 위한 施設이 확충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 畜産物은 대부분 生肉으로 消費되고 있는데 肉加工을 發

展시켜야 한다. 축산물을 加工하여 인스턴트 食品으로 供給하면 食糧으로서의 대체폭도 넓어지고, 공급과잉시 효과적인 저장수단도 되며, 돼지, 닭의 경우 새로운 需要를 창출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

畜産政策

○ 畜産業은 국민경제상 國民의 基本的인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基幹産業이므로 政策當局으로 부터 正當한 價値를 인정받고 合當한 評價를 받아야 한다. 長期的으로 볼 때 축산업은 國際價格의 변동이나 에너지가격의 폭등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比較優位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國內資源 開發이나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볼 때도 合當한 投資部門이다.

○ 合理的인 價格政策의 基本方向은 ① 生産性的 提高 ② 農家所得 增大 ③ 畜産物市場의 安定化 ④ 消費者 保護에 두어야 하는 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消費者 保護위주의 價格政策이지 生産性效率 提高, 안정공급지속 등 生産者 保護側面의 價格政策은 아니었다.

○ 정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畜産物價格連動制는 進歩한 정책이다. 그러나 價格現實化란 이름아래 消費者價格引上, 또는 中間商人保護가 될 가능성이 많다. 가격연동제 실시만으로는 축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流通改善은 물론 消費者, 生産者를 同時에 保護할 수 있는 政策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價格次元에서의 價格連動制보다 일보 進進하여 制度的인 次元에서의 改善이 필요하다. 그리고 價格連動制의 先行 條件으로서 포장, 규격화, 등급화, 정찰제 등이 필요하다.

○ 政府는 단독으로 政策을 수립하지 말고 生産者 團體 및 消費者 團體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일단 수립된 畜産政策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번 政策的으로 권장한 사업에 대해서는 政府가 끝까지 責任을 져야 한다.

○ 畜産統計가 改善되어야 하겠고, 일단 統計가 나오게 되면 통계를 취급하는 사람만 알 것이 아니라 生産者나 기타 關聯業界에 알려져 몇개월후

의 수급상황을 예견하여 生産者가 스스로 生産量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畜産物 價格 및 輸入

○ 價格은 원칙적으로 市場의 自律機能에 맡겨서 自律化해야 하고 政府 역할은 價格에카니즘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需要供給量을 조절하는 최소한의 선에서 끝내야 한다.

○ 쇠고기 輸入은 소의 國內生産基盤을 파괴하고 쇠고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됨으로써 돼지, 닭의 생산기반까지 침해하게 되어 축산물의 해외 의존도를 높게 만든다. 그러므로 쇠고기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쇠고기 값은 지금보다도 올라야 한다. 쇠고기 값이 지금 당장은 좀 비싸더라도 그 결과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생산자금으로 투자되어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고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 日本은 무역도 흑자이고 부채도 많지 않지만 畜産物을 마구잡이로 輸入하지 않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쇠고기를 먹고 있다. 國內生産하는 것이 값은 비싸지만 그 만큼 國民經濟上 效果가 있기 때문이다.

○ 돼지고기 가격은 國際價格보다 싸고 供給의 價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므로 공급량 조절에 힘써야 한다. 國內生産을 유도하되 공급과잉시를 대비하여 가공이나 저장시설 확충은 물론 해외수출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生産者團體 育成

○ 기존의 畜産團體 및 協會를 統廢合 整備하여 生産者團體를 育成하고 人力 및 資金面에서 支援을 強化하여 生産者團體로 하여금 畜産政策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스스로 生産調節을 가능케 하고 소비캠페인이나 調査業務 등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畜産團體들은 政府 비위를 맞추어 特惠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主体性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消費者團體와 좀더 가까워져서 生産者와 消費者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을 극복하도록 힘써야 한다.

肉類價格政策의 改善

池 高 夏
(農水産部 畜産局長)

1. 提 言

우리나라의 畜産物消費는 지난 20여년간 국민생활의 向上과 經濟成長에 따른 所得增大에 따라 계속 伸張하였다.

1960 년도의 국민 1인당 肉類消費가 3.5 kg, 鷄卵 33 개 이었던 것이 79 년도에는 肉類 11.3 kg, 鷄卵 112 개, 牛乳가 9.9 kg으로서 60 년대와 對比할 때 肉類는 3.2 배, 鷄卵은 3.3 배, 牛乳는 거의 消費가 없던 상태에서 무려 10 kg으로 急伸張하였으며, 특히 所得彈性值가 높은 牛乳와 牛肉의 消費가 急成長함으로써 이의 供給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生畜導入의 拡大와 아울러 肉類導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肉類導入은 國內肉類價格形成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하였고, 飼育意慾을 저하시켜 自給化의 生産基盤을 약하게 만들었다.

畜産物の 價格形成은 一般農産物과 같이 供給이 非彈力的이며, 需要가 季節的으로 偏重되어 있고, 流通費用이 過多하여 價格이 不安定하다는 特殊性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價格은 行政指導에 의한 消費者價格의 統制가 不合理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소, 돼지 등 生畜價格은 市場自律機能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으나 消費者價格만은 政府의 行政指導로 硬直化됨으로써 肉類 流通構造上的 矛盾을 가져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3월 15일과 4월 12일

에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行政指導價格制度를 改善하여 連動價格制로 轉換, 實施함으로써 生産者와 消費者를 동시에 保護할 수 있도록 價格制度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背景과 實施方法 등을 설명코자 한다.

2. 背 景

肉類價格政策의 기본방향은 肉類需給의 安定化와 合理化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며, 肉類需給의 合理化는 가능한 自給化의 方向에서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즉 價格의 自律的인 需給調節 機能을 살려 需給의 원활을 기하고, 流通構造의 矛盾을 해소하려는 것이 價格連動制를 실시한 基本構想이었으며, 이는 또 畜産業의 발전과 養畜保護라는 측면에서 肉類輸入을 抑制하고, 肉類輸入 抑制를 前提로 한 需給安定을 꾀하는 것이 현실적 要請이었다.

이와 같이 肉類輸入의 抑制와 價格自律化를 前提로 한 安定化의 시도는 쇠고기 偏重의 肉類 消費構造의 改善을 통한 自給化 推進과 農家所得源으로서의 畜産所得의 위치를 持續化하고, 나아가 國內 賦存資源의 效率的인 利用이라는 측면에서도 意義가 있다. 최근 價格連動制를 실시한 背景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生畜價格의 安定으로 飼育意慾 鼓吹

韓牛는 우리나라 畜産에서 없어서는 안될 主宗家畜으로 農家所得에서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耕種農業의 主役으로서 韓牛價格의 下落은 他家畜價格의 下落을 誘發하고 農家所得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豚肉은 肉類消費 構造上 比重이 가장 큰 品目으로 현재 우리나라 肉類需要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약 32개월 週期로 찾아오는 養豚不況으로 安定的인 發展이 저해되고 있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不況은 심각한 局面을 초래하고 있다.

表 1 生畜價格動向

	'78. 6	'78. 12	'79. 6	'79. 12	'80. 4
韓 牛 (400 kg)	千 696	658	691	638	778
돼 지 (90 kg)	千 102	109	77	37	4.17 4.19 千 千 51.8 → 53.5

돈, 제육은 국내자급여력이 충분하므로 과잉되지 않도록 생산조절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금번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연동제 실시로 쇠고기와 가격차를 유지함으로써 쇠고기 소비가 돈·제육 소비로 대체되도록 유도하여 전체 肉類 價格의 安定과 肉類自給化의 기틀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全體 肉類價格의 安定을 통해서 養畜農家의 生産意慾은 鼓吹될 것이며, 나아가 韓牛 增殖基盤이 造成될 것으로 본다.

참고로 韓日間의 肉類價格과 消費性向을 비교해 보면 韓國의 경우 '79년에 쇠고기 價格은 돼지고기 價格의 약 2.6배에 이르고 있으나, 日本의 경우에는 4.2배에 달하고 있다. 이와같이 韓國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相對價格比가 日本에 비해 작아서, 國民所得이 같은 1,600 달러 수준에서 韓國의 쇠고기 消費量은 全體 肉類消費量의 27%를 차지, 日本의 19%에 비해 심한 쇠고기 消費偏重傾向을 보이고 있다.

表 2 韓日間 肉類 消費性向 比較

區 分	韓 国		日 本	
	'79	'78	'70	'78
所 得	1,600 \$	8,500 \$	1,600 \$	8,500 \$
1人當肉類消費量	11.3 kg (100%)	19.1 (100%)	10.4 (100%)	19.1 (100%)
쇠 고 기	3.0 (27)	3.3 (17)	2.0 (19)	3.3 (17)
돼 지 고 기	5.9 (52)	8.5 (45)	4.7 (45)	8.5 (45)
닭 고 기	2.4 (21)	7.3 (38)	3.7 (36)	7.3 (38)

表 3 '79 韓日間 牛・豚肉價格*比較

단위 : 원

區 分	韓 国	日 本
돼지고기 (枝肉 kg當)	1,070(100)	1,730(100)
쇠고기 (")	2,800(260)	7,280(420)

* '79年 年平均價格.

나. 肉類輸入의 止揚

'76年부터 高度經濟成長과 더불어 肉類消費가 急増한 반면, 輸出 위주의 經濟施策과 政府의 物價安定政策에 밀려 肉類 특히 牛肉輸入이 시작되었다.

'76年부터 부족한 牛肉을 輸入으로 충당함에 따라 提起된 문제를 보면 첫째, '76年에 700千%의 牛肉을 輸入하기 시작하여 '78年度에는 牛肉 總消費量의 40%인 40千%을 輸入 充當함으로써 韓牛飼育頭數 減少와 韓牛肉의 만성적인 不況現狀을 초래하였다.

둘째, 부족한 牛肉을 輸入하여 國內産 韓牛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價格으로 供給한 結果, 특히 牛肉을 選好하는 우리 國民에게 牛肉消費를 더욱 促進하였고, 牛肉의 代替肉인 豚·鷄肉의 需要減退를 가져와 養豚·養鷄産業의 萎縮과 不況을 더욱 深化시켰다.

셋째, 특히 韓牛價格의 下落을 위시하여 養豚·養鷄의 不況을 가져옴으로써 農家所得 減少와 飼育意慾의 低下 내지는 畜産業의 萎縮으로 社會問題化되었다.

이와 같이 肉類輸入이 畜産業에 미친 악영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肉類의 輸入은 최대한 抑制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 行政指導價格의 不合理性 是正

生畜價格이나 枝肉競落價格은 肉類의 需要供給原則에 의거 隨時變動되고 있으나 精肉의 小賣價格은 行政指導價格으로 統制함으로써 隨時變動되는 生産價格과의 乖離을 誘發, 流通構造上的 矛盾을 가져왔고, 精肉店의 價格違反과 暴利, 消費者의 價格不信, 農家의 不滿이 高潮되는 등의 結果를 가져왔다.

表 4 肉類小賣價格 檢討

區 分	枝肉 價格	適正小賣價格	行政指導價格	差 額
최 고 기	원/枝肉kg 3,468	원/精肉 600kg 3,000	원/精肉 600kg 2,500	원/精肉 600kg △ 500
폐 지 고 기	1,118	1,100	1,200	100

註 : ' 80. 3. 1 - 15 基準.

3 . ' 80 年 肉類需給計劃

' 80 年 肉類需給計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肉類自給化의 方向에서 肉類輸入의 抑制와 價格自律化를 前提로 수립하였다. 우선 本 需給計劃의 基本이 되는 肉類需要推定은 計量經濟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需要推定 모델의 關聯變數로서는 自體價格과 代替財價格, 所得, 人口 등이 주로 考慮되었다. 여기서 ' 80 年度 價格資料는 위의 두가지 前提下(肉類輸入 抑制와 價格自律化)에서 推定하였으며, 所得(實質 GNP 成長率 30%) 과 人口(38,446 千人)는 KDI의 推定值를 이용하였다.

위와같은 資料와 推定方法을 이용하여 推定된 ' 80 年度 肉類 總需要量은 ' 79 年 對比 6.4%가 增加된 45 萬 6 千 9 百%이 되며, 이를 다시 肉類別로 보면 牛肉이 10 萬 3 千 3 百% (1 人當 2.69 kg)이며, 豚肉이 25 萬 8 千 3 百% (1 人當 6.72 kg), 鷄肉이 9 萬 4 千 8 百% (1 人當 2.47 kg)

이 될 것으로 豫測된다.

이를 總量面에서 '79年과 비교해 보면 '80年 牛肉需要는 輸入中斷에 의한 價格 上昇과 景氣沈滯 등으로 前年보다 9.2% 減少된 것이며, 대신 豚肉과 鷄肉需要는 牛肉價格 上昇의 代替效果까지 곁들여 前年對比 14.6%와 5.6%씩 각각 增加된 것이다.

한편 '80年度 肉類供給計劃은 國內自給으로 需要를 충당하는 것을 基本原則으로 하였다.

表 5 牛肉需給計劃

單位：%

年 度	需 要	供 給				次年移越
		國內産	前年移越	輸 入	計	
'79	113,827	86,494	6,157	31,747	124,398	10,571
'80	103,309	92,738	10,571	-	103,309	-

表 6 豚肉需給計劃

單位：%

年 度	需 要	供 給				次年移越
		國內産	前年移越	輸 入	計	
'79	225,307	222,984	2,270	7,295	232,549	7,242
'80	258,268	254,026	7,242	-	261,268	3,000

表 7 鶏肉需給計劃

單位：%

年 度	需 要	供 給 (国 内 産)
' 79	89,723	89,723
' 80	94,768	94,768

4. 連動價格制 実施

가. 連動價格制 実施

連動價格制란 都賣市場이나 家畜市場에서의 枝肉 또는 生畜價格에 따라 正當한 流通마진을 加算하여 精肉店 小賣價格을 一定幅으로 連動시키는 價格制度이다.

나. 連動價格制의 運營方法

1) 連動價格 基準設定

農水産部에서는 市道에서의 連動價格表 作成에 필요한 連動價格 기준을 定하여 各 市道에 示達하여야 하는데, 連動價格 기준은 都賣市場의 15日間 枝肉競落價格에 流通諸費用과 精肉店 適正利潤을 加算하여 定한다. 즉 都賣市場 仲介料 1%, 販賣附加金 (7,000 원/頭), 運送費, 諸稅公課金, 店舖 運營費 등을 加算하여 算出한다.

2) 各 市道 價格審議委員會 設置

各 市道에서는 連動價格을 審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審議委員會를 設置토록 하고 있는데, 審議委員會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本委員會의 委員長은 殖産局長 또는 産業局長이 되며, 委員으로는 行

政機關에서 畜政課長 또는 産業局長과 道知事が 委囑하는 9人 이내의 일반인으로 구성된다. 일반인의 구성을 보면 生産者側은 養畜家 또는 農·畜協 任職員 중에서, 消費者側은 消費者 또는 消費者 保護團體 任職員 중에서 食肉 및 料食業所側은 食肉業者 또는 畜産企業組合 任職員 중에서 道知事が 委囑하는 사람으로 構成된다.

한편 委員會의 任務는 ①連動價格의 審議, ②地域別 連動表의 審議, ③連動價格의 실시 및 委員會 運營에 관한 사항의 審議,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審議한다.

3) 連動價格의 決定

가) 枝肉競落價格의 通報

전국의 각 畜産物 都賣市場은 日字別 加重平均 競落價格의 最高價格과 最低價格을 每日 1日부터 5日 간격으로 調查하여, 그 結果를 2日 이내에 市道知事에게 通報한다.

나) 市場價格의 調査

市道知事は 當該地域에 적용할 市場價格 時勢를 5日마다 調查하여 調査日 이전 15日間の 加重平均價格을 5日마다 算定한다.

다) 地域別 連動價格의 推定價格 作成

市道知事は 15日間の 市場價格이 地域別 連動表에 相應하는 地域別 連動價格의 推定價格을 5日마다 작성한다.

라) 最初 連動價格의 決定

市道知事が 처음으로 地域別 連動價格을 결정할 때에는 最近의 地域別 連動價格의 推定價格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결정한다.

마) 連動價格의 變更

期中 市場價格이 15日 前期에 비하여 3% 이상 변동할 때에는 市道知事は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地域別 連動價格을 변경한다.

4) 連動價格의 告示

市道知事が 連動表 및 連動價格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告示하고, 新聞 또는 放送을 통하여 弘報하며, 이를 3日 이내에 關係機關에 通報토록 한다.

5) 連動價格 基準表

都賣市場 枝肉競落價格과 連繫된 小賣價格의 基準은 <表 8> 및 <表 9>와 같다.

表 8 쇠고기 連動價格

都賣市場枝肉競落價格 (kg當)	小賣店連動價格 (精肉 600g)	適正生牛價格 (수소 400kg)
2,700 원	2,400 원	607 千원
2,800	2,500	627
2,900	2,550	647
3,000	2,650	667
3,100	2,750	686
3,200	2,850	706
3,300	2,950	726
3,400	3,000	746
3,500	3,150	766
3,600	3,200	786

表 9 돼지고기 連動價格

市場價格 (서울都賣市場競落價)	小賣店連動價格 (精肉 600g)	適正生豚價格 (生豚 90kg)	備 考
원/枝肉kg	원/600g	千원/頭	生畜價格은 參考價格임.
800	840	51.2	
850	890	54.1	
900	930	56.8	
950	980	59.6	
1,000	1,000	62.4	
1,050	1,050	65.2	
1,100	1,100	68.0	
1,150	1,150	70.7	
1,200	1,200	73.5	
1,250	1,250	76.3	
1,300	1,300	79.1	

物價政策과 畜産物價格

朴 惠 敬
(淑明女大 教授)

最近 쇠고기, 돼지고기 등 각종 肉類의 消費量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所得이 높아지면서 國民들의 食生活 패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1960年 3.5 kg에 불과했던 1人當 肉類消費量이 78年末에는 두배가 훨씬 넘는 7.6 kg으로 늘어났다. 品目別로는 쇠고기가 3.9배, 돼지고기가 1.2배, 닭고기가 2.1배, 달걀 2.5배, 우유는 무려 15배나 늘어났다.

따라서 全体 肉類 가운데 쇠고기가 차지하는 比重은 지난 10年前의 23%에서 해마다 높아져 75年 31%, 78년에는 32%로 급등, 쇠고기 需給에 차질을 빚기에 이르렀다.

一般的으로 食品需要는 價格, 所得의 크기, 그 分配狀態, 代替食品價格, 기호의 食慣習 그리고 人口要因에 의해 결정된다. 經濟가 성장함에 따라 都市化와 工業化가 급속히 진행되면 이들 需要決定要因에도 상당한 變化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國民所得이 높아지면 新鮮食料品과 高蛋白質食品에 대한 需要는 穀物 등 다른 食品보다도 그 增加率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들을 흔히 成長食品이라고 부른다. 畜産食品은 이 가운데서도 價格과 所得變化에 가장 민감한 需要反應을 나타내는 것이다.

所得增加에 따른 우리나라의 肉類消費가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急增하고 있는데, 74년에는 돼지고기 需要가 46%로 減少하고 쇠고기는 상대적으로 27%로 늘어났으며 닭고기는 여전히 70年度와 같은 27%의 消費趨勢를 보였다.

表 1 所得増加에 따른 肉類消費

1人當GNP	100 \$	500 \$	1,000 \$	7,000 \$
肉類消費	3 kg/人	6 (2.0)	10(3.0)	25 (6.0)
人口	27 百万名	35	37	46
年度	1963	1975	1978	1991
所要年度	└ 12年 ┘		└ 3年 ┘	

() 内는 牛肉, 日本 7,000 \$ 소득 (1977) 牛肉消費量 3.0 kg.

資料: 農水産部.

쇠고기 需要가 격증한 것은 이해에 비롯된 飼料波動 이후부터 였다.

飼料의 主原料인 國際 옥수수 값이 엄청나게 뛰여 올랐기 때문에 거의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는 飼料 값이 暴騰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生産農家들은 濃厚飼料를 많이 먹는 돼지나 닭의 飼育을 기피하여 이들 고기의 값이 크게 올랐으나 주로 풀을 먹여 생산하는 쇠고기의 값이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었다.

1974年 쇠고기 600 g당 年平均 價格 789 원, 돼지고기 421 원으로 쇠고기 價格에 대한 돼지고기 價格의 比率 53%가 75년에는 67%로 크게 增大했다. 즉 쇠고기는 600 g당 892 원으로 13% 오른데 비해 돼지고기는 600 원으로 무려 43%나 降騰 뛰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價格動向을 살펴보면 <表 2>, <表 3>과 같다.

이 같은 相對價格의 變化로 말미암아 75年 쇠고기 需要가 前年의 52,000 噸에서 70,000 噸으로 18,000 噸이 급증, 全國의 소 保有頭數가 177万마리에 서 154万 마리로 줄어 들어 生産農家는 쇠고기 生産基盤을 잃게 됐다.

表 2 쇠고기 價格動向 (都壳)

年度別	'75	'76	'77	'78	'79	平均上昇率
指數	100.0	147.9	193.2	253.4	288.3	30.3 %
前年對比 上昇率 (%)		47.9	30.6	31.2	13.8	

資料: 經濟企劃院.

表 3 돼지고기 價格動向 (都売)

年 度 別	'75	'76	'77	'78	'79	平均上昇率
指 数	100.0	142.0	147.8	207.3	198.3	18.7 %
前 年 對 比 上 昇 率 (%)		42.0	4.1	40.3	△4.2	

資料：經濟企劃院.

결국 外國에서 쇠고기를 사들여 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75年 1,000t에 이어 76年 5,000t, 77年 8,000t을 들여 왔다. 79年 10,000t을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輸入했다. 그러나 78年 10월 이전까지 돼지고기가 쇠고기에 비해 상대가격이 43.9%로 크게 떨어지게 되자 그때까지의 쇠고기 消費性向이 돼지고기로 몰려 돼지고기 파동을 빚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78, 79年 돼지고기 15,000t을 들여와 재고가 3,000t에 이르자 過剩生産으로 인하여 79年 6月부터 돼지고기 값이 下落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돼지고기와 같이 需要量에 비해 供給이 너무 많다든가 쇠고기와 같이 供給이 需要를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價格政策에 있어 供給이나 需要 어느쪽도 충족시키지 못한 畜産政策의 實態을 살폈거니와 이에 대한 改善策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國內生産이 慢性的으로 不足狀態에 놓여 있는 畜産物을 싼 價格으로 충분한 量을 供給하기 위하여 輸入을 해야 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方法은 우리의 山地를 開發하여 草地로 바꾸어 우리나라 國民이 要求하는 肉食의 需要를 自給으로 충족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人力이 不足하고 또 外國에서 비싼 飼料를 들여다 飼育해야 되는 현실점에서는 國內自給이 長期的 時日을 要求하므로 物價安定을 위한 매개체로서 輸入을 해야 된다.

生産者를 保護한다는 目的으로 不足分을 輸入에 依存하지 않고 傳統的인 生産支援과 中間商人에 대한 단속으로 供給의 不足을 메우려 하거나 價格의 安定을 기하려고 하면 高度經濟成長으로 인한 食料品消費의 高級化내지 需要增加로 價格이 暴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不足分을 輸入에 依存하게 될 경우 國內生産者는 물론 代替財分

野의 生産者까지 그들의 所得損失에 대한 불만이 대단할 것이다. 그래서 輸入쇠고기가 늘때마다 農家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畜産政策의 어려움을 안겨준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農家中 120 만호 (전농가의 1/2)가 畜産農家(쇠고기)라고 볼 수 있으나, 農家當 飼育頭數는 불과 1~2 두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 農家の 全收入을 畜産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불과 1~2두의 소에 의한 生産者라기 보다는 다른 消費財의 消費者로서의 生活이 더 많다는 것을 認識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輸入에 의하여 쇠고기값을 내릴 수 있는한 내리고 이로 인한 物價上昇을 막는 것이 현명한 消費生活이다. 그렇게 되면 쇠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으므로 밥 위주의 食生活이 개선되어 쌀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2) 輸入쇠고기값의 決定에 있어서 종전과 같이 畜産基金을 쇠고기값에 加算하여 價格決定을 하는 方法을 採択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畜産基金의 使用을 消費者에게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不必要한 費用의 支出을 막을 수가 있다.

輸入쇠고기 600 9 2,400 원 가운데 710 원의 畜産基金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金額이 年間 얼마가 모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事實을 그 基金을 내고 있는 消費者가 알 의무가 있다.

둘째로 畜産基金 가운데 事業支援金을 받는 對象者의 選定基準이 是正되어야 한다. 畜産基金은 國內自給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消費者들이 쇠고기값에 부가하여 부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基金은 畜産의 國內自給을 달성하기 위한 目的에 쓰여져야 되며 이 特惠를 받은 畜産業者는 責任感을 갖고 畜産의 國內自給을 위한 것에 最善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79년에 畜産基金 가운데 5百5億8千6百萬원의 事業支援金이 支出되었다. 그 대상자는 農家の 畜産農家가 되지 못하고 畜産을 企業化시킬 수 있다고 예상되는 畜産業者에게 支払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金力이나 權力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자금이 다른 사업자금으로 유용

될 可能性이 있다.

세째로 畜産을 企業化시킬 수 없는 우리나라의 現實을 생각할 때 하나의 理想을 놓고 막대한 基金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國民이 費用負擔을 하고 이것으로 物價上昇까지 가져오는 二重負擔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畜産物價格의 安定을 가져올 수 있는 畜産의 國內自給化가 可能한가의 여부를 正確히 타진하고 不可能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차라리 畜産基金의 備蓄金을 農家의 전업할 수 있는 부업금으로 돌리고 國內 쇠고기값을 國際價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쇠고기의 流通經路는, 飼育者 → 蒐集商 → 搬出商 → 中央都売市場 → 仲買人 → 小売商 → 消費者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5段階의 中間商人들이 介在하고 있다.

農協을 利用하는 경우 飼育者에서 中央都売市場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中央都売市場에서 쇠고기가 競売되어지기 때문에 小売商의 마아진이 얼마 인지는 統計로 나와있는 資料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쇠고기값은 조정되어 진다. 그러므로 食肉都売市場을 擴大, 強化하여 消費者 保護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고기를 等級, 規格化하여 包裝을 改善함으로써 消費者 기호에 맞는 것을 選擇할 수 있도록 表示가 되어짐으로 内容物에 대한 信賴가 될 수 있다.

(4) 直營으로 運營되고 있는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에서는 流通經路가 단축된 만큼 價格의 引下가 要請된다.

(5) 需給計劃을 正確히 세워야 한다.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각기 週期를 갖고 있다는 것을 勘案하여 이에 맞는 計劃을 세워야 한다.

예를들면 돼지고기는 3年 週期로 上昇과 下落의 波狀線을 形成하고 있음을 把握하고 計劃을 세워야 한다. 또한 금년에 쇠고기값이 올랐다면 農家에서는 소를 많이 기르게 되어 그 다음 해에는 값이 떨어지게 된다는 基本 供給原理를 잊어서는 안되며 이에 맞는 적절한 價格調節과 貯藏方法이 必要하다.

需給計劃과 결부하여 생각할 것은 貯藏施設의 近代化가 시급하다 하겠다.

(6) 國際收支의 적자로 인해서 쇠고기의 輸入反對論을 펼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農家の 畜産農民을 消費者라고 보는 경우를 경시했기 때문이다. 지금 쇠고기를 비롯한 畜産物이 物價를 先導하다시피 하는 狀況에서는 수입쇠고기를 物價安定의 매개체로서 사용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그 뿐만 아니라 輸入을 하지 않는 경우 쇠고기 값이 상승하여 다른 物價에 미치는 影響과 賃金引上이라고 하는 要因이 있기 때문에 싼 노임에 의해서 輸出을 했던 品目에 대한 輸出節減의 狀態도 우려된다. 그렇게 되면 쇠고기 값의 앙등이 輸出減少를 가져와 國際收支를 더욱 惡化시킬 可能性도 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를 막아야 되는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消費를 급격히 줄일 수 없는 狀況이므로 쇠고기값의 安定을 위해서 쇠고기 輸入은 不可避하다.

(7) 消費者教育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教育은 經濟成長을 위하여 生産을 위한 教育으로서 技術을 배우고 專門知識을 배우는 데만 급급했다. 經濟가 高度로 발달하고 있는 狀況에서 消費者가 알아야 될 知識을 일깨워 주는 教育이 必要하다. 畜産物價格政策을 위하여 消費者에게 教育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쇠고기에 대한 需要가 계속 增加하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飼育期間이 길고 飼料效率이 낮은 소를 自給하기 위하여 輸入을 중단한다는 것은 쇠고기의 값을 앙등시켜 결국 各家庭에서의 쇠고기 購入을 위한 家計費 부담이 커진다는 것.

둘째, 畜産所得農家 保護를 위하여 國內 쇠고기값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農家に 돌아가는 利得보다는 몇몇 中間商人과 大資本을 갖은 畜産業者의 폭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세째는 輸入을 하는 경우 畜産基金의 運用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문의하고 의문점은 分析할 수 있는 压力團體를 키워야 한다. 이 團體는 專門家의 意見을 들어 눈앞의 그럴듯한 숫자에 현혹되어 몇몇 畜産業者의 企業化 내지는 國內自給이라는 명분아래 巨額의 畜産基金을 받고 다른 事業에 그 基金이 유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거나 政府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록 壓力을 넣어야 된다는 것.

네째, 直營을 하는 百貨店이나 슈퍼마켓에서도 一般 流通段階를 거친 精肉店과 똑같은 價格을 받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等級으로 包裝하여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감히 是正을 要求할 수 있어야 한다. 價格引下이든가 아니면 直營이라는 말이 虛偽廣告임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섯째, 養豚과 養鷄業은 비교적 작은 面積에서 短期飼育이 可能하고 韓牛에 비하여 飼料効率が 높아 生産이 彈力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韓牛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食生活이 變化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새로운 料理法을 익혀야 된다는 것 등의 教育內容이 되어야 한다.

肉類價格과 畜産物需給

—畜産物需給 및 價格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尹 孝 稷

(建国大 教授)

1 . 序 論

우리나라의 畜産은 1960年代에 들어서 括目할 成長率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成長은 一次的으로 所得增加와 低廉한 美國剩餘農産物의 順調로운 導入에 의한 飼料의 安定的 供給과 새로운 品種 및 飼育技術의 導入에 緣由된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畜産物 消費는 커다란 伸張을 가져왔으나 1975年을 基準으로 「쉐레」(Schere)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한편 1975年과 1979年의 慢性的인 恐慌의 發生으로 生産基盤은 크게 弱화되어 아직도 國內生産은 實質需要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畜産物은 價格과 所得의 變化에 가장 敏感한 需要反應을 나타내는 食品이라 할 수 있으며,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國民所得이 높아지면 高蛋白質食品의 需要는 穀物 (低位保存食品) 보다도 그 增加率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들을 흔히 「成長食品」 또는 「所得彈力的 食品」이라고 부른다.

더우기 畜産物의 需要는 國民所得水準이 500 달러線을 넘어 설 무렵부터는 國民食單에 있어 榮養供給의 均衡維持意欲과 動物性 蛋白質 選好 傾向에 의하여 急激히 增大된다. 더우기 都市化가 急速히 進行될수록 畜産物의 需要 「러쉬」現象은 더욱 그 「뎀포」를 빨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畜産物은 다른 食品에 비하여 價格彈力性과 所得彈力性이 모두 크다. 換言하면 價格의 變化率에 대하여 需要의 變化率이 크고, 또 所

得이 增大할수록 需要의 增加率이 더 크다. 예컨대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般國民의 所得水準이 10% 늘어남으로써 畜産物 需要는 14.4%가 늘어나는 셈이 된다. 또한 動物性蛋白質食品의 初期段階에 있기 때문에 그 價格變化에 대한 需要反應도 대단히 커서 畜産物價格이 10%씩 上昇하였을 경우 需要는 9.1%나 줄어 드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表 1 主要食品 需要의 價格 및 所得彈性值

主要食品	價格彈性值			所得彈性值		
	農村	都市	全國	農村	都市	全國
쌀	- 0.40	- 0.45	- 0.38	+ 0.10	+ 0.10	+ 0.10
보리	- 0.20	- 0.25	- 0.31	- 0.19	- 0.33	- 0.46
밀	- 0.40	- 0.50	- 0.79	+ 0.20	+ 0.31	+ 0.23
채소류	-	-	- 0.10	+ 0.22	+ 0.69	+ 0.21
과실류	-	-	- 0.33	+ 0.45	+ 1.34	+ 0.10
축산물	-	-	- 0.91	-	-	+ 1.44
쇠고기	- 1.80	- 1.40	- 0.81	+ 0.94	+ 1.55	-
우유	- 2.00	- 2.00	- 5.03	+ 5.40	+ 5.80	+ 3.59
돼지고기	- 1.00	- 1.10	- 0.07	+ 0.59	+ 0.55	-
닭고기	- 1.00	- 1.70	- 0.67	+ 0.80	+ 0.95	+ 1.33
달걀	- 0.50	- 0.80	- 0.77	+ 0.86	+ 1.10	+ 0.73
수산물	- 0.50	- 0.40	- 0.93	+ 0.31	+ 0.72	+ 1.35

資料：國立農業經濟研究所, 「食糧經濟問題의 綜合分析」.

그러므로 우리는 畜産政策에 있어서 價格과 所得 및 需給에 대한 配慮가 얼마나 重要한가를 認識하지 않을 수 없다.

2. 價格變動과 畜産物 需給構造

우리나라 經濟가 1960年代 以後 3次 經濟開發計劃을 成功的으로 遂行하는 過程에 國民 一人當 所得이 500 달러 水準(1975年 531 달러)을 넘어서면서 畜産物에 대한 需要가 急「템포」로 增大하고 있음을 <表2>에서 알 수 있다.

즉 1960년에 對比한 1978年의 國內肉類의 總消費는 89,043 % 對 374,000 %으로서 4.2배가 增加하였다. 이를 1人當 消費量으로 換算해 볼 때 1960년에는 3.6 kg의 肉類를 消費하였으나 1978년에는 2.8 배에 달하는 10 kg을 消費하였다. 이를 品目別로 보면 쇠고기가 4.8 배인 2.5 kg, 돼지고기는 2.2 배인 5.1 kg, 닭고기는 3.3 배인 2.4 kg, 계란은 3.5 배인 114 個, 우유는 22 배가 늘어난 9.1 kg을 보여주어 우유와 쇠고기의 消費 增加率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돼지고기의 1人當 消費量은 별로 增加하지 아니하였으며 總肉類消費의 平均增加率인 2.8 배에도 미달하고 있다.

한편 供給의 側面에서 各家畜의 飼育現況을 보면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에 對比한 1978年의 國內飼育頭數는 韓牛가 1,010千頭 對 1,624千頭로서 6.1%가 增加하였고, 豚은 1.2 배 늘어난 1,719千頭, 닭은 3.4 배 늘어난 40,753千首여서, 소의 飼育頭數增加가 극히 低調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쇠고기의 總消費量은 1960년에 비하여 1978년에 7 배가 增加한 반면, 韓牛의 增加는 0.6 배 밖에 增加되지 않아, 이러한 需給隔差는 쇠고기 波動을 不可避하게 했다. 급기야 1978년에 枝肉 39,108 %과 精肉 10,903 %의 大量輸入하여 1974년에 시작된 肥育牛의 生産基盤을 크게 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979년에 畜産恐慌을 發生시켜 畜産農家에 커다란 經濟的

表2 主要畜產物消費狀況

單位：總消費量：%，1人當消費量：gr

分		年度		1960	61	65	70	75	78
		肉類	物量						
總消費量	肉類總量	物量	89,043	91,879	97,600	165,063	232,842	374,000	
		指數	100	103	110	185	261	420	
	肉類別消費量	牛	物量	12,950	13,303	27,261	37,340	70,292	91,000
			指數	100	103	210	288	542	702
	肉類別消費量	豚	物量	58,025	60,043	55,881	82,546	106,956	188,000
			指數	100	104	- 4	142	184	324
	肉類別消費量	雞	物量	18,068	18,533	14,458	45,177	55,594	88,000
			指數	100	103	- 36	250	307	487
	肉類別消費量	雞卵	物量	818,799	818,070	855,786	2,456,064	2,896,132	4,220,000
			指數	100	- 1	105	300	354	515
肉類別消費量	牛乳	物量		1,168	10,474	49,688	162,435	336,000	
		指數		100	896	4,254	13,907	28,267	
1人當消費量	肉類總量	物量	3,559	3,811	3,439	5,191	6,370	10,100	
		指數	100	107	- 4	144	179	283	
	肉類別消費量	牛	物量	510	524	961	1,174	1,990	2,465
			指數	100	103	188	230	380	483
	肉類別消費量	豚	物量	2,317	2,257	1,969	2,596	2,800	5,067
			指數	100	- 3	- 14	112	121	218
	肉類別消費量	雞	物量	732	730	509	1,421	1,580	2,385
			指數	100	- 1	- 30	194	216	325
	肉類別消費量	雞卵	物量	33	31	30	75	82	114
			指數	100	- 6	- 9	128	249	345
肉類別消費量	牛乳	物量		45	304	1,432	4,580	9,100	
		指數		100	675	3,182	10,177	22,222	
1人當GNP			94	95	114	223	531	1,060	

資料：農水產部。

被害를 가져다 주었다. 이로 인하여 돼지고기, 닭고기의 價格暴落은 歷史上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幅이 넓고 깊어 이들 農家의 倒産을 招來케 했다.

表3 家畜飼育頭數의 變化

單位：千頭

	1960	1965	1970	1975	1978	1979
韓 牛	1,010 (100)	1,313 (130)	1,271 (126)	1,546 (153)	1,624 (161)	1,563 (154)
豚	1,397 (100)	1,302 (93)	1,121 (80)	1,247 (89)	1,719 (123)	2,843 (203)
鷄	12,030 (100)	11,893 (99)	23,477 (195)	20,939 (174)	40,753 (339)	41,121 (342)

註： () 內는 1960 年을 100 으로 한 指數임.

資料： 農水産部, 「농림통계연보」.

더우기 지난 3 월까지 우리 政府는 肉類消費價格에 대하여 이른바 「協定價格」이라는 最高價格「실링」制度를 實施하였으나 이는 단지 物價安定策의 一環으로서 價格抑制의 役割에만 置重한 나머지 生産力은 크게 低下시킨 반면, 需要를 더욱 늘어나게 하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뿐만 아니라 國民의 基礎食料品인 畜産物의 需給調節에 있어 價格統制方法은 生産基盤을 취약케 하고 慢性的인 供給不足을 초래하였으며, 流通秩序를 混亂케 하여 不公正去來를 促進하는 것 외에는 消費者에게 별로 利得이 없었음을 先進諸國과 過去의 예에서 널리 立証되고 있다.

특히 生産量의 慢性的인 絶對不足으로 인하여 惹起된 畜産物價格 波動에 대하여 一方으로 最高價格制를 固守한다는 것은 비록 短期的으로 物價安定의 效果가 적지 않다 하더라도 長期的으로 볼 때는 「쇄레」를 惹起시킴으로써 國內 畜産基準과 流通의 混亂을 促進하여 外國産 쇠고기의 導入에 恒久的으로 의존케 할 可能性을 增大시킬 뿐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統制價格은, 韓牛 飼育頭數와 飼育技術이 停滯되어 있는 現實을 감안할 때, 쇠고기 偏重消費를 助長함으로써 國內 韓牛肉의 慢性的인 不足을 招來케 하고 닭고기, 돼지고기의 需要를 減退시켜 이들의 企業的인 發展을 阻害할 뿐만 아니라 企業的인 肥育農家의 存立마저 不許한다. 그리고 都売市場의 價格形成과 分配機能마저 弱화시키고 價格秩序를 亂亂케 하며 商人들의 不公正去來를 助長시키므로, 統制價格이 갖는 矛盾을 是正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國民所得의 增大에 따라 畜産物의 消費가 늘어나는 것은 不可避한 現象이다. 生産이 小規模의 傳統的인 方式을 벗어나지 못한 채 生産要素의 價格은 계속 上昇하는데 畜産物의 最終消費者 價格만을 抑制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一時的으로 行政力에 의하여 可能하다 하더라도 그 結果는 오직 消費의 增大와 供給의 慢性的인 不足, 流通秩序의 混亂만을 招來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畜産物價格을 살펴보면 1970年代에 들어와서 需要急增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약 3배나 上昇하였으나, 現在 우리 나라의 肉類價格을 主要各國과 對比해 볼 때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所得水準은 差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와 生産基盤 즉, 飼料調達面이나 需要構造面에서 비슷한 日本에 比하면, 쇠고기 價格은 $1/4$, 돼지고기와 닭고기 價格은 $1/2$ 에 不過하다. 또한 傳統的으로 畜産이 農業의 기반이 되고 飼料資源이 豊富한 先進國에 比하여서도 우리 나라의 肉類價格은 比較적 낮은 水準에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畜産物의 需給問題는 畜産物의 生産 및 流通費用을 過多하게 하는 要因을 먼저 除去하여 生産과 流通이 圓滑히 되도록 하는 한편 健全한 消費風土를 造成해야 하며, 次元 높은 畜産政策과 價格政策이 遂行되어야 한다.

表 4 世界 主要都市의 畜産物 消費者價格

單位：육류：원/근, 기타：원/kg

	쇠고기 (등심· Steak)	쇠고기 (어깨· Roast)	돼지고 기 (등 심)	돼 지 고 기 (Roast)	햄 (통조 립)	베이컨 (Sli- ced)	닭고기 (전체)	계란 (10개)	버터	마가린	치즈	우유	쌀
Bonn (독일)	3,084	1,711	2,039	1,837	-	1,636	778	592	2,275	1,296	2,726	274	754
Brasilia (브라질)	827	723	766	1,063	-	1,158	400	320	1,118	610	1,968	125	250
Brussels (벨지움)	3,594	1,936	1,472	1,561	2,258	1,503	904	544	2,453	1,032	3,403	293	571
Buenos Aires (알젠티)	985	674	933	1,503	1,996	1,348	752	468	2,462	1,642	2,981	283	562
Canberra (호주)	2,004	1,184	1,279	1,149	1,549	2,125	939	440	1,037	970	1,685	221	384
Copenhagen (덴마크)	5,443	2,105	2,534	2,177	2,223	2,399	852	712	1,963	1,018	3,091	293	806
London (영국)	2,894	1,394	1,449	1,034	1,060	1,760	570	612	1,531	850	1,766	230	518
Mexico City (멕시코)	1,100	1,074	1,054	1,163	-	1,152	683	332	1,642	811	3,542	139	274
Ottawa (캐나다)	1,863	1,276	1,279	1,259	1,621	1,022	616	336	1,267	1,142	1,982	240	624
Paris (불란서)	2,506	1,403	1,253	1,771	2,710	2,975	913	636	2,136	821	1,742	274	648
Rome (이태리)	2,745	2,572	1,371	1,544	1,716	1,509	855	504	2,136	830	2,160	264	600
Stockholm (스웨덴)	3,822	2,756	1,979	3,482	2,388	2,125	1,115	784	1,646	1,258	3,024	226	749
The Hague (화란)	3,444	2,016	1,656	2,088	2,004	2,868	700	444	2,165	758	2,741	250	552
Tokyo (일본)	11,514	7,563	2,906	2,724	3,712	2,295	1,005	400	3,115	1,325	2,611	480	739
Washington (미국)	2,025	1,371	1,472	1,835	1,503	1,155	475	364	1,862	835	2,453	298	456

資料：美國飼料穀物協會, 「뉴우스레터」.

3. 畜産物の 価格과 流通構造

物量的인 増産은 自然条件과 技術条件에 의하여 左右되지만 増産의 結果인 生産農家の 所得實現은 流通条件에 의하여 判定된다.

바꾸어 말하면 結果的으로 價格条件의 好·不好가 生産農民의 實質的인 收入을 決定하며 나아가 將來의 増産에 커다란 影響을 미친다.

그런데 飼育農民의 立場에서 畜産物の 價格構造를 살펴보면,大部分의 工産物과 같이 農民이 能動的으로 價格을 決定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市場의 需給에 의하여 決定된 價格을 受動的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價格을 發見하는 立場에 놓여 있다.

한편 市場構造에 있어서 農民은 그들이 生産한 商品을 完全競争下에서 販賣해야 하나, 그 商品을 購入하는 商人은 購買寡占이나 獨占의 競争下에서 購入하므로, 農民은 언제나 不利한 立場에 놓이게 된다.

또한 生産要素를 販賣하는 商業資本家나 飼料生産者는 獨占의 競争이나 寡占下에서 販賣하나 飼育農民은 生産要素를 購入할 때나 生産物을 販賣할 때 都市獨占資本의 資本攻勢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언제나 去來에 있어서 不利한 立場에 놓이게 된다.

더우기 農家門前去來가 支配的인 닭과 돼지의 경우 購入하는 商人은 購買獨占의 市場構造에서 이들을 購入하게 되어 一方的인 價格決定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價格構造 뿐만 아니라 市場構造도 飼育農民에게는 不利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与件下에서는 飼料業者, 加工業者, 中間商人 등 流通主体만이 肥大할 뿐이고 生産者와 消費者는 經濟的 被害를 甘受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流通構造에 있어서도 이는 生産者와 消費者의 經濟的 被害를 強要하는 여러 가지 要因들이 介在되고 있는바, 蒐集搬出段階에 있어서는 家畜市場의 非公開 相對去來의 盛行과 仲介人の 目測評價에 의한 농간 등 家畜市場의 公正去來機能이 弱화되어 있고, 強制給水行爲의 常存과 生体運搬時 減量(南原 - 서울 5 kg), 密屠殺 盛行, 市場情報의 未洽 등 여러가지 流通效率을 低下시키는 要因이 介在되어 있다.

한편, 中央都売市場段階에 있어서는 食肉中央都売市場 3個所가 서울에만 開設되어 있고, 仲買人과 食肉商의 단합으로 競落價格이 不公正하게 形成되어 類似都売行為가 盛行됨으로써, 枝肉價格의 一方的인 決定 및 操作(大邱, 釜山)으로 枝肉價格決定이 不公正하며 非衛生的인 枝肉去來가 이루어지고 不當物量마진과 不當價格마진을 取하는 등 不公正去來가 盛行되고 있다.

또한 小売段階인 精肉店에 있어서는 不當等級, 不正計量, 混肉販賣, 輸入肉을 韓牛肉으로 販賣하는 등, 不當한 物量마진을 取得하고 있으며, 農協直売店이 一般消費者가 아닌 精肉店에 輸入肉을 販賣하는 등 여러가지 不公正去來가 盛行하는 등 農家門前을 떠나 農終消費者에 이르는 過程까지 不公正去來로 一貫되고 있다.

그리고 政府가 開設 許可한 物的流通施設인 家畜市場, 中央都売市場, 屠畜場의 施設이 設備基準에 未達할 뿐만 아니라 各種 公課金과 租稅가 過重한 편이어서 流通效率과 流通速度를 鈍化 내지는 沮害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서울의 경우 1日 需要量 소 600頭, 돼지 12,000頭中 50~60%가 都売市場을 經由하지 않고 類似都売市場을 통하여 暗去來되고 있다. 이들의 輸送手段과 地方屠畜施設, 貯藏, 保管 등의 不備를 考慮할 때 서울市民은 不法處理 되었거나 非衛生的으로 다루어진 많은 肉類를 消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이 流通費用이 過多하게 發生하는 소지와 非衛生的인 流通에 대하여는 外面하고 小売段階의 價格만을 묶어 두려는 物價當局의 短見이 畜産物 流通秩序를 더욱 混亂에 빠지게 하고 있음을 直視해야 한다.

4. 改善 方案

이상 우리나라 畜産物의 生産과 消費, 價格과 流通構造의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 봄으로써 이에 대한 몇가지 改善方案을 提示코자 한다.

이제 까지 物價當局은 단지 物價安定의 一環으로서 畜産物價格抑制에만 置重한 나머지 生産力은 크게 鈍化시켰으며, 流通秩序의 混亂과 需要를 더욱 增大시키는 結果만을 招來하였다. 이로 인하여 「쉐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쇠고기의 大量輸入<圖 1, 2 參照>으로 인한 1979 年의 慢性的인 恐慌은 農村과 都市間의 所得隔差를 크게 함으로써 離農을 크게 자극시켜, 農業資源의 效率的인 利用을 크게 低下시켰으며, 나아가 農村人口의 都市集中에 의하여 都市勤勞者의 賃金低下를 초래케 하고 失業을 증가시킨 비참한 現象을 招來하였음은 看過할 수 없다. 또한 獨占資本의 勢力이 農村에 侵透하여 土地의 非效率的인 利用으로 土地가 荒廢化되고 있어 畜産物의 海外依存度가 날로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經濟的인 自主性이 결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小農生産樣式을 떠난 價格政策은 農民의 最少限의 慾求인 自家勞動報酬마저도 補償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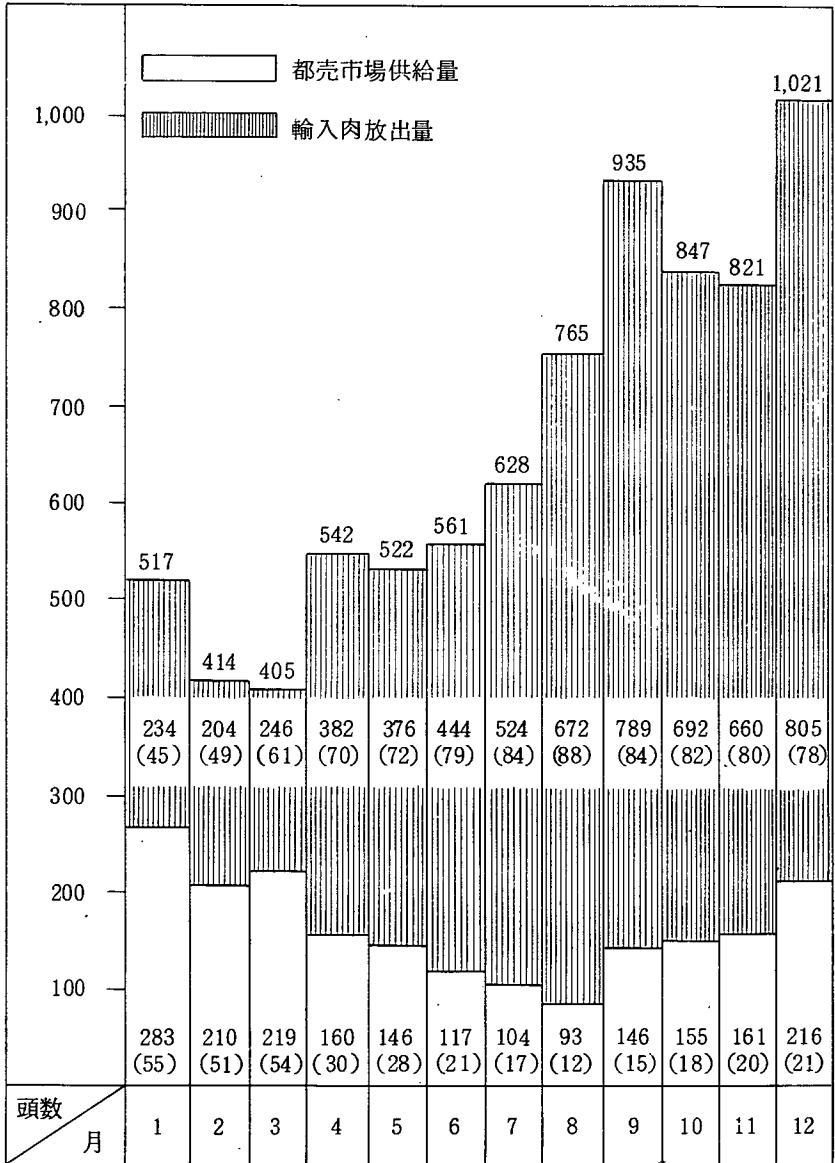
이제 比判的 意識에서 畜産政策의 전반적인 改善을 하지 않는 限 우리나라 畜産의 發展은 기대할 수 없다. 1970 年代 초반의 世界食糧波動이 있기까지 그 동안 美國剩餘農産物의 低廉하고 무제한적인 導入에 의하여 우리나라 畜産業은 크게 成長할 수 있었던 素地가 만들어졌으나, 이제 世界的으로 食糧이 武器化되고 있는 情勢下에서 輸入에의 의존은 止揚되어야 하며 國內賦存飼料의 利用을 적극화하는 方案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1981 年度에 이르면 1人當 GNP가 1,200 달러 水準에 달할 것으로 展望되어 所得彈力的인 畜産物의 需要는 더욱 增大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所得水準이 높아지면 그에 相應하는 食單의 多彩로운 營養配置와 높은 營養價食品 즉, 動物性 蛋白質食品의 보다 많은 消費를 要求하게 된다. 따라서 國民體位向上과 保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動物性 蛋白質食品이 계속 供給되어야 한다는 것은 經濟發展과 더불어 緊迫해 질 뿐이다.

이와 같이 畜産物의 安定的供給이 現實과 將來에 있어 피할 수 없는 政府當局의 當面課題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이를 解決하는 길은 畜産農家의 所得保障과 流通過程의 健全한 發達을 講究하는 데 있음은 새삼 強調할 必要는 없다. 政府가 主穀의 自給을 達成하기 까지 그 基盤造成과 流通合理化를 위해 投下했던 投融資, 價格補助, 技術指導, 租稅減免 및 行政支援助 등의 努力이 10 分의 1 만큼 畜産業의 基盤造成과 畜産物 流通合理化에 경주한다면 우리나라의 畜産業은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上位 中進國을 指向하는 우리 經濟에 있어 畜産政策의 당면한 重要課題는 畜産物의 需給均衡 등 價格安定 및 流通合理化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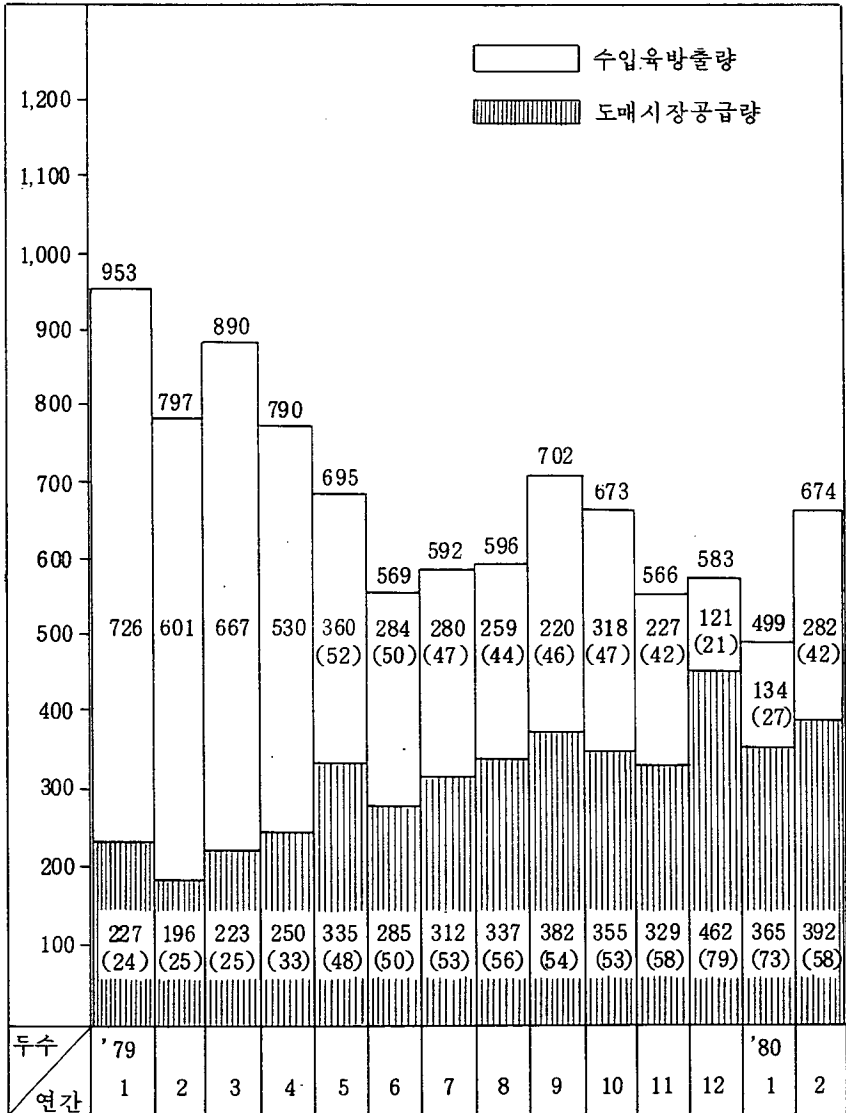
圖1 쇠고기 1日供給狀況 (서울, '78)



註：()内는 총 공급량에 대한 비율(%) .

資料：畜産振興會.

圖 2 쇠고기 1 일 공급 상황 (서울, '79)



註 : () 내는 총공급량에 대한 비율 (%) .

資料 : 畜産振興會 .

이러한 政策을 效率的으로 遂行하려면

첫째, 價格抑制 및 規制 一辺倒의 政策을 止揚하고 生産基盤造成 政策을 主로 政策轉換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生産者에게 有利한 受取價格을 保障하여 増産을 위한 誘引을 계속적으로 提供하는 方案이 生産者에게 提示되어야 한다. 오늘날 畜産物은 食糧으로서 國家의 安保와 直結된다. 食糧의 武器化에 對処하기 위해서도 輸入을 最大限으로 줄이고 長期的인 眼目에서 國際競争力を 強化하는데 注力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過剩生産의 경우, 收買價格은 企業農에게는 平均生産費를 補償해 주어야 하며, 小農에게는 그들의 最少限의 要求인 自家勞動 報酬를 補償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從來와 같이 國內價格이 國際價格보다 높다 하여 輸入에 依存하려는 姿勢는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 需給의 均衡을 維持하기 위해서 長短期의 畜産物 需給計劃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客觀的인 研究機關으로 하여금 畜産物의 長短期 需給計劃을 發表케 함으로써 年例行事와 같은 過剩生産 또는 過剩需要가 發生하지 않도록 사전에 供給을 調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短期的으로는 價格 및 市場情報體制를 強化하며 地域的 需給不均衡과 價格差異를 解消해야 한다.

셋째, 政府가 권장 또는 推進한 結果에 대해서 責任을 지는 精神에 立脚하여 價格暴騰時보다 價格暴落時에 將來의 増産을 지속시키기 위한 措置를 強力히 推進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974年度의 肥育事業이라든가 1978年度의 肥育豚増産 등 價格이 暴騰하자 行政力을 動員하여 増産을 권장한 다음해에 이들 増産이 이루어져 價格이 生産費以下로 暴落하였으나, 政府收買價格은 價格安定帶下限線에 훨씬 未達하고 收買量도 적었는데, 이처럼 農家經濟에 타격을 주는 行政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物價當局이 畜産物價格上昇時에 抑制 및 規制 一辺倒의 政策만을 強行하려는 姿勢는 버려야 한다.

셋째, 市場構造를 볼 때 畜産物을 供給하는 面에 있어서는 完全競争狀態에 있고 이들 需要面에선 商人이나 加工業者는 獨占的 競争 또는 寡占市

場을 形成하고 있어 獨占資本의 攻勢로 언제나 不利한 立場에 서게 되므로, 小農의인 生産樣式을 떠고 있는 豚과 牛의 경우 農畜協의 購販事業을 強化하여 生産物을 販賣할 때나 飼料 등 生産要素를 購入할 때 이들의 犧牲을 最少化해야 한다.

또한 家畜市場의 現行 目測에 의한 居間の 仲媒方法을 止揚케 하고 競売方法으로 轉換토록 해야 하며 中央都売市場의 競売에 있어서도 仲買人의 數를 늘림과 同時에 大量 需要者의 競売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도 大幅 擴大하여 購買市場도 完全競爭市場化 하는 政策的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와 併行하여 農家門前去來와 類似都売行爲를 根絶토록 하는 法的 措置도 뒤따라야만 한다.

네째, 現行 流通 및 施設을 整備補充하여 流通費用을 節減시켜야 하고, 現行 市場手数料와 各種公課金 및 租稅를 大幅의으로 下向調整해야 한다.

오늘날 家畜市場은 場當 50 頭 未滿의 去來가 이루어지는 市場數가 全家畜市場의 68%이므로 이를 規模의 經濟性에 맞게 統廢合하고 그 施設을 近代化해야 하며, 屠畜場도 稼動率이 극히 低調(소 8.4%, 돼지 22.6%) 하므로 이를 統廢合하여 衛生的인 施設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現行 家畜市場의 仲介手数料는 1~2% 都売市場上場時는 40,000 원의 手数料와 公課金を 控除하고 있으므로 이를 大幅 引下해야 한다.

다섯째, 產地市場과 中央都売市場 및 消費地市場인 精肉店의 不公正去來를 根絶시키고 生産者와 消費者를 保護할 수 있는 새로운 流通經路가 確立되어야 한다.

현재 中央都売市場은 全部 서울에만 存在하고 있으므로 이를 大都市에 分散토록 하고, 여기서 等級 및 標準化에 따라 部位別로 切斷, 真空包裝하여 消費地의 食肉店 뿐만 아니라 冷蔵施設을 갖추고 있는 食品商으로 하여금 販賣토록 하여, 現在 食肉店에서 部位別로 切斷 計量하는 制度를 廢止해야 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料理形態와 맛에 基準을 둔 現實의인 標準化와 等級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市場情報와 價格情報를 大幅改善하여 全國市場圈을 最大限 完全競爭化해야 한다.

끝으로 物價当局의 農畜産物價格 抑制 및 規制 一辺倒의 政策은 1975年以後 [예레]를 激化시켰고, 이로 인한 農村과 都市의 커다란 所得隔差는 離農現象을 招來케 하였다. 이로 인한 農業人口의 都市集中은 土地의 荒廢化와 都市勤勞者의 實質賃金を 低下시켰을 뿐만 아니라 失業者의 數를 增加시켰다.

더우기 1979年의 畜産恐慌은 소의 放売現象을 惹起시켰고, 이로 인하여 農家에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는 資産의 切下와 現金所得源을 縮少시킴으로써 生産意慾을 크게 低下시켰은 물론 農村과 畜産物生産에 대한 忌避現象마저 胚胎시켰다.

이와 같은 심각한 오늘날의 農村의 樣狀을 直視하여 適節한 処方을 하지 않는 限 앞으로 우리나라 農業은 危機에 처할 것이다. 이들에게 離農을 막고 生産意慾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小農의 生産樣式을 意識한 強力한 政策이 뒤따르지 않는 限, 恒久的인 農産物의 海外依存은 不可避하게 되고 經濟的 自主性은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農畜産物 價格抑制政策이 物價安定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農業危機를 發生시켰다는 事實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政策方向은 農業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企業農의 側面뿐만 아니라 小農의 側面에서도 生産意慾을 불러 일으키는 보다 次元 높은 政策이 遂行되어야 할 것이다.

討 議

吳相洛(司會, 서울大教授) 오늘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이 時宜適切한 主題를 가지고 이자리를 마련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

지금까지 農水産部 池高夏 畜産局長이 「肉類價格政策의 改善方案」, 淑大 朴惠敬教授가 「物價政策과 畜産物價格」, 建國大 尹孝稷教授가 「肉類價格과 畜産物 需給」에 관한 主題發表가 있었다.

池局長은 政府가 그동안 추진해 온 施策중 畜産物價格連動制에 역점을 두고 발표해 주었으며, 朴教授는 肉類의 輸入을 積極支持하고 畜産基金의 用途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畜産物流通의 여러가지 改善方案을 提示하였다. 尹教授는 오늘날의 國民經濟成長과 工業發展은 農民의 犧牲 아래 이루어졌다고 前提하고, 1978 ~ 79 년의 農業恐慌, 肉類恐慌, 市場構造의 購買独占現象, 價格機構, 流通構造 등의 問題點에 관하여 發表했다.

朴教授와 尹教授의 發表內容은 아주 對照的이었다. 이와같이 畜産이나 農業問題는 두 교수 의견뿐만 아니라 政府側, 生産者側, 消費者側 모두 다른 立場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또 政府안에서도 農水産部와 經濟企劃院의 主張이 엇갈릴 수도 있다. 肉類輸入을 놓고 어떤 政策樹立者는 比較優位說을 내세워 導入을 지지하고 있고, 어떤 政策樹立者는 國內生産保護를 위해 輸入을 積極 막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이 政府안의 여러가지 苦衷이 있을 수 있고, 消費者의 主張, 生産者의 主張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가 자기 主張만 내세우기 보다는 改善, 補完方案에 관한 政策代案을 提示하여 주기 바란다.

먼저 生産者 立場에서 發表하고, 다음 消費者 立場에서 發言하고, 끝으로 中立的 立場에 선 學界의 순으로 發言해 주기 바란다.

趙春善(大韓養豚協會江華支會長, 篤農家) 20年동안 養豚을 하면서 느낀 소감과 개인적인 고충을 말하겠다.

나는 지난해 돼지파동의 진정한 원인은 生産過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經濟發展이 제일 먼저 가져 오는 것은 味覺의 變化이다. 지금이 食品改革의 과도기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고기로 10년전이나 지금이나 流通構造面에서 조금도 改善이 없었다.

尹教授는 輸入을 늘려서 供給을 충당하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肉類波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結論을 내렸는데 나도 동감이다. 우리나라의 食糧調達政策에서 主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畜産物도 중요한 食糧資源이므로 加工技術을 개발하여 먹기 좋게 만들어 供給하면 국민영양에도 좋고 代替食糧으로도 훌륭하다고 본다. 라면이라는 인스턴트 식품이 開發되면서 저분 분식의 普及效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 파동을 겪고 있는 지금 가정의 취사용 에너지 소비량도 무시 못할 비중이다. 돼지고기를 통조림 등 가정조리가 크게 短縮되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보급하면, 畜産物 消費性向도 늘어나 國民保健面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養豚問題를 過剩生産의 側面에서만 社会的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中共은 세계 養豚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過剩生産이 政治問題化 되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이토록 많은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것은 自給飼料가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養豚農家の 飼料費用을 줄여 生産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리짚 등을 이용하여 飼料自給도를 높여야 하겠다. 中共은 酵素飼料와 草食飼料의 비중이 78%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옥수수 알곡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 잎까지 발효시켜 飼料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生産原価를 절감하면 國際競争力도 強化될 것이다. 現在 養豚生産費의 75%를 飼料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酵素飼料 등 自給飼料의 비중을 많이 높여서 生産費를 節約하는 方法이 나와야 되겠다. 農閒期에 놓고 있는 遊休勞動力을 吸收하여 飼料의 自給率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돼지도 30%까지는 草食이 可能하므로 보리를 播種하여 綠飼料로 使用하는 方法도 있다.

政府의 畜産行政에도 問題가 있다. 우선 養豚에 관한 基本統計調査조차 잘 안되어 있다. 現在 一線邑面에는 畜産担当 職員이 한사람 뿐이어서 열

글조차 보기 힘들 정도다. 따라서 畜産指導도 잘 안되고, 바쁘다 보니 統計數字도 卓床에서 적당히 자기 나름대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 같다. 現在 農村의 養豚現況을 볼 것 같으면 70% 이상이 倒産危機에 있다. 企業農家가 飼育한 頭數는 전체의 10%인 27萬頭에 불과한데, 이것이 전체 養豚市場을 마비시킬 정도로 좌우한다는 것은 秩序維持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78年度에 養豚이 好況期를 누리다 보니 資金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養豚에 投資를 했다. 그러다 보니 돼지 波動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根本原因 중의 하나는 政府가 돼지 收買施策을 發表했기 때문이다. 政府가 돼지 收買를 하니, 앞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展望 아래 養豚農家들이 자꾸 規模를 擴張하다 보니 결국 도산하게 된 것이다. 洪水가 나서 물이 넘치면 이를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돼지가 過剩生産이 되어 계속 값이 떨어지면 輸出窓口를 열어서 出血輸出이라도 해야 需給關係가 均衡이 되는 것인데, 國內備蓄만 계속하다 보니 長期的인 돼지 波動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한국의 養豚産業은 畜産政策과 食糧生産政策이 제도적으로 改善되어야만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政府 当局에 부탁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政府는 畜産物政策의 執行에 있어서 일선 畜産指導要員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生産者團體를 強化 育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需給調節을 맡도록 해야 한다. 즉 生産者가 스스로 알아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전국에 2,000 명의 農産物 統計要員이 있는데 - 우리 집에도 이들이 오지만, 防疫 때문에 畜舍에 들어가지 못하고, 돼지가 몇 마리냐고 물어 보고 農民들이 말해주는 그 숫자를 적어 바로 統計로 올린다. 따라서 고무줄 統計가 안될 수 없다. 보리겨라도 나오고 農家에 利益이 될성 싶으면 숫자가 올라가고, 稅金에 關係될 것 같으면 숫자가 내려가는 것이다.

둘째, 生産者에게 屠畜權을 달라는 것이다. 生産者들이 直接 잡아서 直売場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금 마장동에서 돼지 1頭 屠畜하는데 3,500 원의 屠畜費가 들며, 지방에서는 屠畜稅 등 이것 저것 합쳐서 15,000 원의 屠畜費가 든다. 15,000 원이란 屠畜費가 바로 消費者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政府의 收買를 기피하는 傾向도 있고, 또 收買 規格豚까지 길러 놓은 돼지도 없다. 지금 出荷되는 돼지는 작년 10, 11月の 새끼가 나오는 것이다. 돼지 새끼는 150~180일이 되어야 出荷되는데 그 당시 한창 養豚이 不況이어서 돼지 새끼를 갖다 버릴 정도까지 되었으니 지금 나올래야 나올 돼지가 없다. 그런데도 돼지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農民이 버티다 못해 팔아 치우고 職業을 轉換하여, 일시적으로 過剩 出荷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78年度 好況期에 마장동의 하루 屠畜量은 750頭 가량 되었는데 지금은 1,100~1,200頭가 되고 있다.

輸入豚肉은 우리나라 食生活改善에 劃期的 役割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됐던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 너도 나도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되어, 지금 서울시내의 경우 78년에 비해 38% 더 屠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만큼 國民消費量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기호성에 맞는 肉加工을 개발시킨다면 需要는 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나 生産過剩이라는 問題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生産者의 가장 큰 고충은 飼料問題이다. 飼料는 運搬費用을 生産者들이 二重으로 負擔하고 있다. 지금 飼料輸入 問題가 대두되고 있는데, 飼料工場에서는 濃縮飼料만 만들고 糠麩飼料는 生産者들에게 직접 배당하면 生産者들이 飼料工場에서 나온 濃縮飼料를 사다가 자체에서 배합사료를 만들어 쓸수 있을 것이며, 2重의 수송비부담이 안 생길 것이다.

柳允洙 (韓國畜産団体聯合會長) 앞의 政府側 발표에서 78년도에 고기를 더 먹었다고 했는데 고기를 더 먹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기를 갖다가 들어 부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統計를 보면 쇠고기는 지난 20년 동안 年 3~6% 정도 供給이 增加되고 需要가 늘었는데, 78년에는 쇠고기를 단박에 40%나 增加 供給했다. 이것은 需要의 增加가 아닌 供給의 增加이며, 이에 더하여 低價로 放出해서 消費가 늘어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쇠고기를 이토록 많이 먹었으면 좋았겠는데, 주로 都市 飲食店에서 消費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므로 이것은 需給政策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畜産基金을 비롯하여 畜産物의 需給에 있어

서 消費者들이 負擔하는 것은 모두 그 내역과 용도를 發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의 畜産業이 나갈 길에 대해 나의 소견을 밝힌다면, 첫째, 資源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용할 수 있는 山地가 많이 있으므로 山地를 개발해야 되겠다. 畜産振興基金의 최소한 1/3을 山地開發에 投資해서 肉類資源의 供給을 늘려야 한다. 山地를 개발해야만 需給問題가 자연히 해결된다.

둘째, 飼料供給 問題이다. 最近의 畜産物 波動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飼料政策에도 원인의 일부가 있다. 穀物波動이 있을 후 정부는 무제한으로 輸入 옥수수를 供給했다. 여기서 중요한 問題가 야기되었다.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으로 봐서 資源을 개발하여 自給飼料를 최대한 活用하고 부족분만 導入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畜産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飼料의 流通도 개선해야 한다. 전부를 完全 配合飼料로 공급함으로써 중간 마진이라든지 2중, 3중의 輸送費用을 生産자에게 負擔시키지 말고, 유럽에서 하고 있는 식으로 不足한 原料만 배합한 濃縮飼料를 供給해서 自給飼料와 섞어 配合飼料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해서 畜産農家が 生産費를 節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政府의 畜産支援은 畜産業을 主業으로 하는 農家に 중점을 두고 집행되었으면 한다. 지나친 副業獎勵는 農家數가 많기 때문에 유동적인 家畜數가 增殖되어 需給의 不均衡을 초래하기 쉽다. 山地開發을 하는 企業畜産은 積極支援하되 그 밖의 大企業畜産은 政府가 지원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畜産公害의 問題나 지나친 獨占經營은 農家人口가 3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總和團結에 問題가 있다. 大企業畜産은 配合飼料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飼料輸入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네째, 生産者團體, 消費者團體를 育成해야 된다. 不公正去來防止는 말로만 되는게 아니라 生産者團體, 消費者團體가 育成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다. 生産者, 消費者의 教育은 물론이고, 流通이 개선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어용단체만 지원, 育成되어 왔을 뿐이다.

다섯째, 政府施策이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政府는 일관성있는 施

策으로 消費者와 生産者가 協力할 수 있게 中間에서 交渉 役割을 해 주기 바란다.

金天柱 (主婦클럽中央會事務處長) 政府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이렇게 잘 먹었는지 물어 보고 싶다. 내가 보기엔 農水産部가 도시나 잘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거나 觀光客들이 먹은 것까지 통계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든다.

소비자들은, 價格連動制란 고기값을 올리거나 中間都売商만을 保護하는 제도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政府는 統制價格 대신 自律化를 실시한다고 1,800 원 하던 輸入 쇠고기 價格을 2,400 원으로 30%를 올려 받았다. 政府는 連動制를 실시하여 수입 쇠고기 값을 600 원을 더 받았으므로 하나도 損害를 보지 않았다. 政府도 어느 정도 양보한 것이 아니라 받을 것 다 받고, 제할 것 다 제하여 소비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웠다.

精肉店은 精肉店대로 남길 利益은 다 남겨 먹고, 게다가 計量器마저 믿을 수 없어. 消費者들은 그 만큼 더 비싼값으로 쇠고기를 사먹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수입 쇠고기를 사려는 것은 싸게 먹자는 것인데, 농수산부가 지정한 精肉店 말고 다른 곳에서는 수입 쇠고기를 살 수가 없다. 그나마 수입 쇠고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아침에 나가서 서너 시간 서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이니, 결국 소비자들은 수입 쇠고기를 3,000 원에 사 먹는 셈이 아닌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현재의 精肉店 許可制를 廢止하고 전적으로 申告制로 바꾸어 냉장고를 제대로 갖추고 신고만 하면 구멍가게도 취급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都売市場에서 競落價格으로 팔아 값싸게 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消費者는 一方的인 政策에 당하고, 價格統制에 당하고, 連動制라는 것에 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自律化를 하려면 그런 면에서 좀더 自律化해 주기 바란다.

外國에서는 等級制를 실시하여, 고기가 좋은 것은 값이 무척 비싸고 — 아마 여기에 나오는 外國 고기값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마 최고로 좋은 고기 價格일 것이다 — 내장, 뼈 같은 것은 굉장히 싸다. 그런데 우리나라

라에서는 수입해 온 꼬리, 내장 같은 것조차 굉장히 비싸다. 다시 말해 쇠고기는 모두 1등급이지 2등급이나 3등급은 없는 것이다.

즉 우리는 쇠고기를 무조건 枝肉價가 아닌 精肉價格으로 사 먹고 있는 것이다. 政府가 中間 이상 사람들보다 中間 이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옳바르게 政策을 遂行하는 것이다. 중간 이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權力이 있으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고 살지만, 중간 이하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 이 중간 이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의미에서, 連動制를 실시하면서 등급제는 실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副産物인 内臟이라든지 뼈 같은 것은 價格을 좀 낮추었으면 한다.

또 하나 쇠고기의 選好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쇠고기를 다른 고기보다 좋아 하는 것은 못살다 보니까 쇠고기를 먹어 보고 싶어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점점 늘고 있는 것이 漢藥局인데,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이 그래서인지 자꾸 한약국을 찾게 되고, 漢醫는 돼지고기, 닭고기 먹지 말라고 항시 이야기 한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자꾸 먹어야 양이 늘지 안먹기 시작하면 자꾸 안 먹게 된다. 이것도 쇠고기 選好의 한 原因인데, 政策當局에서는 이 점을 전연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또 하나 오늘 이 자리에 畜産團體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畜産團體가 政府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겠지만, 그러지 말고 消費者들에게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한다. 協會에서 능동적으로 消費者 團體에 營養價 對比라든지 調理法 같은 研究 등을 알려주었으면 한다.

정부는 국민과 더불어 즉 畜産團體 또는 消費團體와 公聽會를 열어 충분히 상의하고 정책을 樹立할 것이지, 위에 앉아서 따라 오라며 끌고만 가지 말았으면 한다.

이제는 소비자의 교육 수준도 높아졌으므로 모자란다고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 草地를 造成하여 生産하는 것과 輸入하는 것 중 어느 정책이 좋은지 납득할 만한 통제를 가지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바란다. 어떤든간에 消費者 입장에서는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

司會 統計問題, 連動制 등 政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政府側에서 말씀해 주기 바란다.

金權喆 (農水産部畜産課長) 主要 쇠고기 生産國, 즉 아르헨티나, 美國 브라질의 75년도 소 飼育頭數는 339百萬頭였으나, 78년에는 329百萬頭로 12百萬頭가 減少하였다. 世界各國의 생활이 나아지니까 消費가 늘어 난 것이다.

75년도의 쇠고기 國際交易量은 238萬톤이었으나 78년도에는 306萬톤으로 30%가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쇠고기 값이 上昇했다. 76年 6月 豚 肉 878 달러 하던 쇠고기 값이 79年 6月에는 2,200 달러로 上昇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쇠고기를 도입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72년 이전에 中東産 原油를 얼마든지 싸게 수입하여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생각이다. FAO의 쇠고기 需給展望에 의하면 85년도의 쇠고기 供給 부족량은 100萬톤에 달하며, OECD의 展望에 의하면 190萬톤이 모자란다. 이처럼 쇠고기는 점차 부족될 전망이고, 85년에 가서는 사온다 해도 상당히 비싼 값으로 들여 와야 할 것이며, 物量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소는 1년에 한 마리밖에 새끼를 못 낳는다. 한번 生産基盤이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 農民이 한 번 畜産을 기피하면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構築하는 것이 農水産部の 施策이다. 따라서 공급의 탄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國土를 개발하고 遊休地를 활용하는 것이 政府의 基本施策이다. 만약에 쇠고기를 무조건 수입해 먹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면 세계 각국이 값싼 쇠고기를 사다 먹지 英國이나 和蘭 같은 나라가 어찌서 소를 기르고 畜産奨勵를 하겠는가. 英國이나 和蘭이나 프랑스의 경우 國土가 좁고 經營의 규모가 작고 모든 여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畜産을 하는 것은 農業도 産業이고, 農民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農水産部の 立場은 消費者뿐만 아니라 生産者도 보호하자는 것이다.

政策을 立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人力이다. 그러나 政府가 畜産에 投資하는 것은 年間 20億원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豫算이 4兆

원인데, 20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몫이다.

아까 養豚을 하시는 趙先生도 말씀하셨지만 市, 郡에 가면 畜産係가 한 명 있어서 畜産局에서 떨어지는 일을 전부 다 하며, 道에 가도 마찬가지다. 農水産部에서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畜産과 畜産行政의 역사는 짧다. 解放 이후부터 갑자기 畜産이 커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달음질치라는 것과 같다. 78년도에 畜産物의 消費가 무척 늘었다. 이처럼 需要가 증대된 것은 그 해에 統一主体國民會議 代議員 선거와 國會議員 선거를 치루면서 肉類消費가 무척 늘어난데다, 그 해가 好景氣여서 전반적으로 肉類消費가 늘고, 거기에 政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값비싼 고기를 들여다 공급한 때문이다.

連動制에 대해서 消費者側에서 그것이 도매상의 保護施策이고, 政府가 손해를 안보기 위한 施策이라고 힐책한 것은 連動制를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消費者의 立場을 考慮해 달라는 채적으로 받아 들이겠다. 農民은 경쟁적으로 사서 경쟁적으로 팔고 生産資材를 구입할 때도 경쟁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소를 팔 때는 不特定 多數農家가 싸게 팔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都売市場의 競落이 결정되는데, 유독 精肉店의 小売價格만 政府가 정해 놓고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돼지고기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行政担当者, 精肉店代表, 生産者代表가 한 자리에 모여서 價格審議委員會를 구성하고 여기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되 精肉店에게도 적당한 마진을 준다는 원칙 아래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消費者 價格이 올라갈 때는 競落價格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소비가 촉진되어 反應이 빨리 生産者에게 전달되는 制度를 가져 보자는 것이 農水産部의 생각이다.

金成斗(朝鮮日報 論說委員) 조금 전에 主題發表를 하신 분이 쌀의 自給達成을 위해 쇠고기를 많이 수입해다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이야기이지만 이승만 박사가 國民들이 쌀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

니까, “쌀이 모자라면 고기를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 고기를 먹지, 모자라는 쌀을 먹으려고 왜 자꾸 사고를 일으키느냐” 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農水産部가 농업정책을 하는 것인지, 經濟企劃院이 농업정책을 하는 것인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畜産物은 국내에서 자급한다는 원칙하에 畜産振興政策을 수립하여 실시하겠다는 것이 農水産部의 주장이고, 物價安定을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환수해야 되겠고 따라서 쇠고기를 좀 수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經濟企劃院이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 지시하면 農水産部는 ‘알겠습니다’ 하고 農協을 통해서 物價를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農水産部가 消費者를 위한 農水産部나 農業生産者를 위한 農水産部나 이따금씩 의심을 해 볼 때가 많이 있다. 消費者 입장으로는 輸入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輸入하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이 얼마든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에서 쌀은 무엇 때문에 생산하며 콩은 무엇 때문에 生産하는가? 모두다 輸入해 먹으면 되는데 말이다. 지금 너무 많이 輸入해 먹다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 우리가 진 빚은 206억 달러였다. 우리가 이것을 동전으로 바꾸어 國民이 나누어 짊어지면 다 못질 지경이다. 貿易赤字는 작년에 50억 달러, 올해는 60 몇억 달러가 될 것이며 앞으로 갈수록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말이 쉽지 輸入해 먹을 이 댓가는 누가 치르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輸入해 먹을 때는 맛이 있고 값이 싸서 좋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누가 갚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다. 빚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우리가 도저히 못 갚을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잘 먹고 나서 죽으면 우리 子孫들은 빚이나 갚고 있는 상태가 되기 쉬울 것 같다.

올해 우리가 갚아나가야 할 元利金 상환액은 본래 30억 달러 정도이나, 國際金利引上이다 뭐다 하는 덕분에 8억 달러 정도가 追加負擔이 되어 38~39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 올해 무역적자가 60 몇억 달러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負債狀態를 생각하고 난 후에야 輸入해 먹자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이다. 消費者들의 입장에서는 貿易赤字, 國際收支를 잘 알 바 없고,

輸入하니까 값이 싸지고, 輸入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日本을 예를 들어 보면 무역도 흑자이고, 빛도 많지도 않고, 함부로 輸入하지도 않는다.

日本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쇠고기를 먹고 있다. 작년 美國 農務省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EC 각국은 쇠고기 값이 kg당 12달러, 日本은 36달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6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6달러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輸入해 먹으면 $\frac{1}{6}$ 값으로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36달러라는 값이 형성되도록 놓아두느냐 하면, 역시 국내에서 生産하는 것이 값은 비싸지만 그 만큼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편안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農産物價格이 國際價格의 1.5 배를 넘으면 수입한다는 政策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돈만 많다면 1.5 배가 아니라 얼마든지 수입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돈이 모자라고 빛은 나도 갚아야 하고, 내 子孫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수입하는 것을 먼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뉴우질랜드나 오스트랄리아 같은 데 가 보았는데, 그 넓은 땅, 광활한 平野에 草地가 造成되어 있고, 스코올이 와서 비를 잘 뿌려 주고, 비가 오고 나면 해가 쨍쨍 나서 풀을 키워 주고, 소를 누가 키울 필요도 없이 갖다 놓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새끼 낳고 잘 자란다. 사람들은 자란 소를 잡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서 나온 쇠고기와, 아침이면 내어 먹이고 저녁이면 들여매고 소죽 끓여 주어 키운 우리나라의 쇠고기와 값을 비교한다는 이런 論理는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이다.

工業製品 같은 것은 國內價格이 國際價格의 몇 배나 되는 것도 國産品을 싸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 것에 비한다면 왜 農産物은 수입해야 되는지, 즉 農産物을 수입하자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農民이 약해서 수입을 해도 말을 못하니까 그런지 자꾸 수입해 먹다가는 우리들의 내장은 어디에다 연결해서 가동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국내에서 생산해 먹었기에 창자의 파이프라인이 국내 농민, 농촌에 직결되어 농민들이 수도 꼭지를 쥐고 있는 겪이었는데, 이제 고추는

멕시코, 참깨는 인도네시아, 마늘은 세계 어디에나 연결되어 있어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우리 창자의 수도 꼭지를 다 쥐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리다가 세계 각국의 生産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매운 것 못 먹고, 짠 것도 못 먹는 사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쇠고기도 마찬가지이다. 조금 전에 連動制 말이 나온 중에 다른 고기는 싸게 해서 쇠고기 값을 못 올라가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고기 값은 그럼 싸도 괜찮으나,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돼지고기 消費者 價格을 1,200 원 이하로 정했는데, 그러면 돼지는 가격이 싸도 손해 안 보는 장사인가? 아까 1,200 원이 適正線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適正線인지 아닌지는 돼지 먹이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야 할 줄로 안다. 非農産物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收益性이 보장되지 않느냐 하는 계산이 되어야지, 돼지가 먹는 것이 얼마니까, 얼마 받고 팔면 된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면 된 것이 아니냐하는 식은 맞지 않는다.

쇠고기가 비싸면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가 비싸면 양고기를 먹고, 다음에는 토끼고기, 오리고기를 먹어 정부가 너무 돈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정부가 외국에서 양고기를 수입해다가 안 먹으니까 消費促進을 한다고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서 친절하게 많이 소개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그렇게 친절하게 소개하면서, 국산 양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다. 어디 양고기 뿐인가? 외국의 경우 오리고기도 잘 먹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도 많고 바다도 많아서 오리는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다. 스위스에 가보니 토끼고기를 많이 먹고 있었다. 우리 국민의 입이 무엇이 그리 대단해서 쇠고기만 먹어야 하는가? 언제 그렇게 쇠고기를 많이 먹었는가? 그리 멀지 않는 옛날만 해도 일년에 설, 추석 등 명절날 그리고 부모님 제사때나 쇠고기를 먹어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했다. 이젠 쇠고기를 안 먹으면 밥을 못 먹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정부의 低肉價政策 때문이다.

정부가 78년 1년동안에 4만톤을 수입했다고 한다. 다른 統計를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5만 7천 톤을 수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해 우리가 10만 6천 톤을 먹었으니까 약 60% 가량 수입에 의존한 것이고,政

府統計에 의하면 40% 가량 수입에 의존한 셈이다.

4~5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쇠고기는 국내에서 100% 자급할 수 있었고, 다소 수입을 했다 하더라도 자급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업화를 한다고, 너도 공장 지어라, 너도 공장 넓혀라 하고, 돈을 너무 많이 찍어 막 뿌리다 보니까 인플레이가 가속되었다. 이러다 보니 돈을 좀 끌어 넣어야 하겠는데, 무슨 방법으로 끌어 넣을 것인가, 수입을 해야겠다. 수입을 하기는 해야 할텐데, 일반 국민들이 많이 먹는 것을 수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추, 마늘, 참깨 같이 1人當 消費量은 적지만 모든 국민이 다먹는 것을 수입하게 되었다. 또 쇠고기도 모두 다 먹으니까 수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실정이었다. 돈이 너무 발행되어 문제가 되니까, 한 때는 벤츠, 캐딜락 등 고급 승용차까지 대량으로 수입한다는 발표가 된 적도 있다. 또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국제 화장품을 좋아하니까, 이것까지 수입하였다. 그러니까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할 지경에 이르러 쇠고기, 돼지고기를 수입하게 되었고, 값이 싸니까 야단이 난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돼지고기를 먹을 것인가? 그 결과로 78년에 10만원 하던 돼지고기 값이 79년도에는 3만 5천원까지 떨어지고, 78년도에 3만 5천원 하던 돼지고기 값이 79년도에는 제값도 못받는 것은 고사하고 팔 수도 없어 벌판에 내다 버리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래서 모든 畜産은 망조가 들었다. 무엇하는 정책인지 농수산부는 도대체 무엇하는 곳이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농수산부는 경제기획원의 농수산과 밖에 되지 않는다. 농수산부에도 장관이 있으니 장관 대 장관이 대결을 해서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시키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거나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농수산부 장관의 입장인데, 항상 경제기획원 차관하신 분을 장관 자리에 앉혀 놓으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제까지 농수산부 장관은 농사를 아는 분이 들어간 적도 없고, 농수산부 장관도 며칠 쯤의 친기는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젊은 사람이 들어간다.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소가 어떻게 돼지가 어떻게할 수 있으며, 쌀이 나무에 열리는지 어디에 열리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쌀 정책을 잘 하겠는가? 이런 식

으로 하다 보니 자꾸 농업은 망조가 들고 있는데, 이것을 본 께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지금이 중요한 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식성을 쇠고기에 자꾸 집결시켜 놓았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쇠고기에 맞들여 놓았다가는 앞으로 돼지고기는 먹지 않을 것이고, 또 오리고기, 양고기 등의 고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쇠고기 값은 비싸야 한다. 쇠고기가 비싸야만 돼지고기를 먹는다.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과 체질이 비슷한데, 돼지고기를 잘 먹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도 잘 먹는데, 우리만이 쇠고기 먹자는 법은 없다. 이것은 정책 여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으니,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한다.

중국 요리와 불란서 요리 중에는 오리고기가 제일 비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오리고기를 안먹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고기가 모자라면 오리도 키워서 먹어야 할 것이며, 국민체위 향상을 위해 단백질 공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고방식하에 정책을 수립해서 실시하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초지조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대관령에 가보니까 해발 1,400 m 고지에 600만평의 광활한 산지가 있는데 농토로는 부적합하고 임산지로도 쓸모없는 곳이지만 훌륭한 목야지로 되어 수 천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초지를 조성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 초지조성이 안된다 하더라도 소 1두 사육하던 농가는 2두, 3두 사육할 수 있다. 따라서 총사육 두수를 2배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가격인데 이제는 농수산부가 힘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본다.

金淑喜 (梨大教授) 營養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다. 아까 돼지고기가 過剩生産된다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돼지고기가 많이 생산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營養實態를 보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은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 政府統計는 또 다르겠지만 우리 국민이 먹는 食品 중에서 동물성 식품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의 經濟가 성장했다고 강조하는데 經濟成長이 된 나라일수록 動物性食品을 먹는 比重이 커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動物性食品의 소비가 늘

어났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5%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이 쇠고기를 몇 萬톤씩 먹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민전체로 보면 1人당 하루 1g을 먹는 階層이 대부분이다. 한강맨손의 高所得層의 경우는 1日 단백질 소비량이 60~80g 수준이었다. 經濟企劃院에서 쇠고기를 들여와라, 고추를 들여와라 하는 것은 몇 십 배의 소비를 하는 高所得層의 입이 무섭고, 나오는 말이 무서우니까 그 입을 막으려는 政策이 아닌가 생각한다.

成人의 하루 영양 섭취량은 2,000 Kcal 로 보고, 이 중 15%를 단백질로 먹는다고 하면 칼로리 수로는 300 Kcal 이며, 단백질 1g에서 4 Kcal가 나오니까 무게로는 약 80g의 단백질이 된다. 이 중에서 1/3만 肉類에서 섭취하고 나머지는 식물성 식품에서 섭취한다면 섭취해야 할 肉類蛋白質의 양은 약 30g이 된다. 肉類 중에서 水分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이므로 하루에 30g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100g 정도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니까 生鮮으로 50g 정도 보충한다 해도 나머지 50g은 돼지고기든 무슨 고기든 섭취해야 營養勸奨量으로 보아서 좋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1~2g인 국민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50배 이상의 肉類消費需要를 갖고 있는 셈이며, 이런 입장에서 보면 肉類가 過剩生産이 되었다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政策의 절대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肉類供給의 절대량이 부족한 나라이고, 그래서 肉類를 수입해서 먹었는데, 문제는 수입하는 방법이다. 食品이란 대체로 오래 보존하기 어려우며, 冷藏庫施設에 보관하자면 막대한 施設投資와 電力이 소모된다. 몇 만 톤씩 한꺼번에 수입하는 것은 보존에 문제가 있고, 비용에도 문제가 따른다. 食糧政策에서는 大單位가 통하지 않는다는 좋은 예는 작년에 말썹이 많았던 수입식품의 폐기사건, 즉 冷藏施設 부족으로 仁川 앞바다에 내버린 고기, 양파, 감자, 고추 등이다.

우리 국민의 영양에서 動物性 食品이 모자라는 것은 확실하다.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른보다도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우선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여야 한다. 國民學校 學校給食에서 쇠고기국을 먹인 것이 큰 뉴

우스 거리가 되는 실정인데, 고기가 過剩生産되어 말뽕이 생겼다면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 학생들에게 나누어 먹이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台灣에서도 어린이의 영양개선을 위해서 政府가 우유값의 2/3를 보조하고 나머지 1/3을 어린이가 부담토록 하여 어린이라면 누구나 우유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台灣은 肉類加工이 발달하고 料理法도 다양하여 동물성 단백질을 이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될 층이 많은데도 못 먹어서 야단이 났더니 營養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우유 이야기가 나왔으니 까한 말 더 하겠다. 우유는 牛乳價를 告示해 놓으니까 食品加工業體들은 우유 값을 올리지 못하고 대신 이상한 유산균음료를 만들어 값을 터무니 없이 붙여 팔고, 소비자들은 業者들의 선전에 녹아서 이것이 대단한 營養食처럼 야단 법석들인데 이전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다. 여기에 우유가 들어 있으면 몇 방울이나 들어 갔으며, 그것이 乳酸菌飲料라고 하는데 그 속에 乳酸菌이 들어 갔다고 해야 얼마나 들어갔겠는가. 함량의 대부분은 설탕물이다. 이것을 부인들이 집집마다 배달하고 가정에서는 그것이 진짜 補藥인 것처럼 먹고 있는 실정이고, 진짜 우유는 값이 비싸서 보급이 잘 안되고 있다. 이것은 消費者만 탓할 것도 아니고, 生産者만 탓할 일도 아니며, 政策的인 면에서 결함이 있는 것이다. 政府는 국민들에게 건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유에 색소를 넣고, 물을 섞고, 딸기를 타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다. 요쿠르트를 만들겠거든 진짜 요쿠르트를 만들라는 것이다. 營養學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으라고 하지만 食品 기호처럼 완고한 것이 없다. 食性은 一朝一夕에 바꾸기 힘들다. 정책적으로 제아무리 좋다고 권장해도 嗜好에 맞지 않으면 소비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教育投資가 있어야 한다. 食性 教育도 하나의 교육이다. 學校給食은 가난한 집 어린이들 배를 불러 주자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食性教育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國民食

生活改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業種이 있어서 食品의 禁忌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해야 할 것이다. 營養學的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단백질 값어치는 똑 같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이 자리에는 畜産과 物價관계 정부 당국자만이 나오신 것으로 있는데 이런 문제는 農水産部, 經濟企劃院, 文教部, 保社部 등이 橫의인 연락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崔鍾洛(經濟企劃院 物價政策 1 課長) 이 자리가 經濟企劃院 聲討大會 비슷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 과열된 것 같다.

쇠고기 政策에서는 經濟企劃院과 農水産部 사이에 시비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 압력을 가한 것도 사실이며, 政策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需給側面에서 보면 所得이 上昇함에 따라 쇠고기 消費는 계속 늘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國民所得이 10% 增加하면 쇠고기 消費는 13%가 增加한다. 75년부터 보더라도 쇠고기 소비는 13%씩 증가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牛肉文化圈이다. 台灣은 豚肉文化圈이고, 日本은 生鮮文化圈이다. 文化圈이나 嗜好는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消費 패턴을 바꾸어 나가야 하지만 당장에는 가격을 통해 소비를 조절하는 수 밖에 없다. 쇠고기 한 근에 만원 또는 5천원 하더라도 國民이 수긍한다면 따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어거지로 수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生産側面에서 보면 75년부터 79년까지 生牛價格이 年平均 30%씩 올랐다. 75년에 소 400kg 1마리가 23萬 5千원이었으나 76년에 36萬 8千원으로 1년 사이에 57%나 올랐다. 77년도는 52萬 4千원으로 전년보다 31%가 올랐다. 그러다 78년에 쇠고기를 좀 많이 수입하니까 매년 오르기만 하던 가격이 오히려 약간 떨어졌다. 매년 소값이 40%, 50%씩 뛰다가 78년도에 수입을 해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農家の 반발이 심했다. 정부는 이 가격이 너무 싸다고는 보지 않지만 農家生産費價格에 못 미친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수입을 가급

적 줄이려고 한다. 반면 가격이 뛰는만큼 소가 增殖이 되어야 할텐데 75년의 160萬 4千頭가 79년에는 176萬頭로 1년 동안에 불과 18%밖에 늘지 않았다. 소가 이렇게 增殖이 안된 이유 중의 하나는 종전에는 소가 役用牛로서 사용되었으나, 農機械 普及과 더불어 役牛로서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農家人口와 農家數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農家は 年平均 2.4%, 農家人口는 4.8%씩 減少하고 있다. 이 밖에 國土는 좁고, 겨울은 길어 增殖이 어렵다. 따라서 쇠고기 값이 매년 30%씩 뛰니 不足物量은 輸入해서 충당할 도리밖에 없었다.

또 78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이 해에는 外換 인플레이가 심했기 때문에 달러를 소비해야 通貨量을 조절하고, 通貨量을 잡아야만 物價를 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消費와 生産間에 構造的인 不均衡이 있었으므로 이런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앞으로의 과제는 生産者와 消費者, 그리고 國內資源 保護面에서 어떻게 調和點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쇠고기 한 근에 5천원, 만원씩 가도 좋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生産者와 消費者間에 妥協點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우선 農家所得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다음에 消費者 價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農水産部가 분석한 79년도 쇠고기 생산비는 頭当 (400kg) 肥肉牛의 경우 73만원이며, 이것은 80년에는 80만원, 81년에는 90만원, 82년에는 1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비가 이처럼 올라간다면 소값도 이에 따라 올려 주어야 한다. 農家生産費를 보장해 주는 선에서 소값을 보장해 주고, 국내 공급이 충분히 된다면 수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물량이 부족할 때는 약간씩은 수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금년도 農水産部の 計劃은 작년보다 9.1% 줄여서 需給計劃을 수립했는데,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며, 이렇게 하여 需給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物價当局에서는 生産者를 보호하되 價格을 더 못 올라가게 하여 消費者도 보호하는 선을 찾아 정책을 이끌어 나

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

農産物 輸入에 대해 신랄한 비난이 있었는데 農産物輸入政策은 가장 마지막에 施行해야 할 것이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農産物은 農家所得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國內市場의 基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政府가 輸入政策에 앞장을 선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오해이다. 政府가 輸入政策을 먼저 들고 나온다 해도 되지않을 것이다. 고추輸入의 경우를 보면 78년초 고추값이 斤당 5,000 원이나 되었는데 國內需要가 15萬톤인데도 생산량은 4萬톤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김장을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이런 사태에서도 政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심지어 農村에서도 비난이 날아 들어왔다. 그러다 보면 農家保護도 안되는 것이고, 流通業者들의 장난에 의해서 流通業者만 致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不足物量을 輸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價格도 잡기는 했으나 많이 는 못잡고, 그래서 비난도 받았다. 정부는 消費者保護, 價格安定, 生産者保護,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輸入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민전체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수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宋基澈 (高麗大教授) 畜産政策은 經濟政策의 일환으로서 經濟哲學의 관점에서 출발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소홀했던 점이 있지 않으나 본다. 金成斗 위원은 後代의 國際收支를 걱정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當代의 國際收支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77년에 政府가 상당한 誤判을 한 것 같다. 外貨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선 쓰고 보자고 輸入政策을 조금 무리하게 밀고 나갔고, 그것을 農業政策에까지 적용했는데, 이것은 잘못이었던 것 같다. 畜産政策은 기본적으로 價格에 의해 誘引되는 것이지만 기타 誘因, 소위 policy mix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본다. 이러한 점에서 畜産政策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격만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가격도 價格連動制면 다 된 것으로 본다면 곤란하다.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價格連動制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再販賣價格維持政策의 일종이 아니겠는가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 왜냐 하

면 여기 제시해 놓은 기준이 다소 애매하기 때문이다. 400 ㄱ을 適正 마진으로 했는데 400 ㄱ을 기준으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原価計算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쉽다.

다음에 需給計劃인데 80年度 需給計劃을 보면 종전에 移越量이 하나도 없어 좀 이상하다.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輸入政策에 대한 이야기인데, 輸入은 절대 안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부분적으로 조건부적인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企業牧場 중에는 不動産 投機에 목적을 둔 것이 있지 않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崔誠實(韓國企業牧場協會 專務理事) 선진국들의 畜産政策은 첫째, 國民食生活에 필요한 農畜産物을 國內에서 생산한다, 둘째, 생산된 畜産物을 국제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한다, 셋째, 農畜産業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타산업 못지 않은 소득과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세가지 목표아래 전개되고 있다.

우선 선진국들의 국민생활을 보면 穀物을 주로하는 전분질 식품이 대략 1,000 Kcal, 우유, 육류, 생선 등 동물성식품이 1,000 Kcal, 油脂, 설탕, 과일, 야채 등 식물성식품이 1,000 Kcal 로 區分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77년도 어떤 영양학관계 잡지에 의하면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이 2,427 Kcal 이고, 이중 전분질식품이 77.2%이고 동물성식품은 6.7% 밖에 안된다. 이런 낮은 給養狀態에서 소 160萬頭, 돼지 300萬頭 가지고 절절 맨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축산당국은 生産者위주로 축산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현재의 실정을 보면 생산자들은 다 망한다고 아우성인데 飼料業者와 乳加工業者만 돈을 벌고 있다. 消費者도 利益을 나눠받지 못하고, 保護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농축산시책에는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좀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畜牛는 현재 전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소는 수임기간이 10 개월이고 24 개월 먹여야 400 kg이 나가며, 제대로 된 소를 도축장에 내보낼라면 3년이 걸린다. 78년 11월말 畜牛 경영비분석을 한 것을 보면 肥育牛 頭當 粗收

益에서 생산비를 뺀 純利益은 -13%인 9萬원이었다. 韓牛번식사업의 경우는 粗收益에서 生産費를 뺀 경영소득이 -71,354 원이었다. 경제성장의 방향은 1次産業을 계속 제자리에 묶어 놓는 것이었다. 150億달러 수출해서 原油에 60억달러 지불하고, 곡물과 사료도입에 20억달러 쓰고, 거기다 쇠고기까지 사다먹는다면 나라살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최고기價格連動制도 좋지만 생산자의 적자폭을 어떻게 메꾸어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물가는 마구 뛰는데, 75년에 頭當 20萬원 하던 송아지값은 79년에 와서도 20萬원이다. 축산정책을 이렇게 물고 간다면 우리나라 축산기반은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이웃 日本을 보면 매년 부동산가격을 告示하듯 송아지가격을 고시하여 市場價格과의 차이를 補填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으며, 송아지값은 매년 물가상승폭 만큼 올려서 책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5년전 송아지값이 그대로 있고 돼지값은 오히려 6만원짜리가 3만원짜리가 되는 축산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先進國을 재는 尺度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食糧資源의 확보도 그 척도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잘 산다」는 개념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어 졌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부가 쌀 10% 增産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投資를 했는가. 반면 똑같이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畜産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1985년에 이르면 人口增加를 勘案할 때 지금의 소 160萬頭가 350萬頭로 늘어나야 하고, 젖소까지 합쳐 400萬頭的 소가 필요하다. 연동제는 일시적인 처방밖에 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價格보상을 해 주지 않는 한 소의 頭數가 더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생산자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안 세워지므로 주기적인 축산물파동이 오게 된다. 가격이 떨어지면 축산농가가 가축을 모두 방매, 도살하고, 그 결과 가격이 오르면 정부에서 캄플주사를 놓고 축산을 장려하여, 그 결과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쇠고기 경우는 그 週期가 3年이고, 돼지는 10 개월이다. 정부는 이 週期를 메꾸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連動制는 일시적인 만족은 줄지 모르나 정상적인 정

책은 되지 못하며, 보다 근본적인 價格支持政策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權英子 (主婦)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푸줏간에 가서 쇠고기가 있으면 쇠고기를 사먹고, 돼지고기가 있으면 돼지고기를 사먹었을 것이고, 문제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했을 뻔 했다.

여기 와서 통제 수칙과 내년에는 이월되는 양이 없다는 말을 듣고 보니, 금년에도 쇠고기 품귀다,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도 사먹기 어렵다, 더 심해지면 쇠고기 파동을 다시 한 번은 겪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 소비자들은, 고기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요식업자들이 미리 다량 구입했기 때문인지, 돈이 있어도 사 먹지 못한 파동을 겪었다. 쇠고기의 공급량은 줄더라도 먹는 입은 늘어날 것이다. 인구의 자연증가율도 있고, 또 생활이란 한 번 늘려 놓으면 다시 줄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畜産業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쇠고기를 덜 먹고 참으라, 아니면 돈이 많으면 비싸게 사먹으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좀 참기 어려운 것 같다. 과거에 경험을 하기로는 資本蓄積이 되어야 國民經濟가 발전된다, 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資本家가 생기도록, 말하자면 재벌이 생기도록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재벌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지금 消費者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 푼이라도 더 빼앗아 가지 못해서 별별 장사를 다 하고, 별별 구실을 다 붙이기 바쁘지 않은가? 畜産業者라고 해서 나중에 재벌이 되면 우리한테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참아 달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金淑喜 教授도 말했듯이 營養的인 견지에서 먹어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의 공급량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이 양으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觀光客도 먹고 그 외에도 많이 먹는다. 아마 일반가정에서 소비되는 양은 더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보다도 쇠고기 내지 다른 고기가 國民營養面에서 더 많이 소비되어야 한다. 특히 消費者의 입장으로서 이것 저것 다 생각하기 싫고 먹고 싶을 때 푸줏간에 가면 고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그것은 결국 누가 해 주는가? 정부가 政策을 세운다는 것은 별것이 아닐

것이다. 국민들이 아쉬워 할 때 해 주는 것이 정부이다. 국민 속에는 물론 消費者만 있는 것이 아니라 生産者도 있고, 消費者가 동시에 生産者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消費者도 만족시키고 生産者도 만족시키는 정책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消費者의 입장으로는 生産者에게 늘리기는 싫다. 生産者를 위해서, 生産者들이 재벌이 되도록 기다리는 그런 정책에 소비자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고기는 적고 먹기는 많이 먹어야 하겠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수입을 해서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옷은 안 입어도 살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지금 백화점에 가면 輸入商品을 많이 볼 수 있다. 달러가 모자라면 不要不急하고 생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그런 상품의 수입을 좀 줄이고, 그 달러를 가지고 食品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고기의 수입이 우리나라 畜産業을 망가뜨릴 지경까지 가서는 안되겠다. 食糧輸出國들이 식량을 武器化할 때는 우리는 그날로 굶어야 되므로 전적으로 외국에만 의존할 정도로 輸入해서는 안되겠지만, 부족분은 당연히 수입하여 메워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있다. 프랑스 사람의 입을 막으려면 食品으로 막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먹을 것을 잔뜩 주어야만 불평이 없지, 배를 골려 놓으면 몹시 시끄럽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곧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食糧은 항상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 있기를 원하며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 동안 나는 畜産이 꽤 잘 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養豚을 하는 農家は 70% 이상이 倒産危機에 있고 그래서 다 팔아치우고 轉業을 한다고 하니 금년 초반에는 돼지고기가 남는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가을엔 돼지고기가 없는 현상이 생길것이 아닌가. 또 소는 3년이 지나야 한 마리가 市場에 나올 수 있다고 하고 현재 소 마리수도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輸入하지 않고 소를 갑자기 늘이는 方法도 講究하지 못한다면, 肉類政策을 어떻게 실시해서 우리에게 고기를 공급해 줄 것인가.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렇다고 해서 쇠고기를 쏟아 부어 주는 그런식으로

많은 양을 輸入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적절한 양을 수입해서 적어도 쇠고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波動이란 것을 겪지 않도록 일정한 양을 공급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價格問題인데, 조금전에 經濟企劃院 課長께서 “쇠고기가 만원가도 좋으나 그렇다면 좋다”고 다분히 협박조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收入 家境으로는 쇠고기 한 근에 만원간다는 것은 곤란한 이야기이다. 價格은 우리의 家計收入과 어느 정도 비등한 價格水準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價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가에게 계속 손해를 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그 가격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飼料 같은 데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 飼料費가 生産費의 75%를 차지한다는 데 지금 같이 配合飼料를 사다 먹이면 아마 값이 안내릴 것이다. 이 문제는 飼料를 개선하는 방법을 축산업자들이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流通構造上의 문제로서 소위 流通段階가 5 단계나 된다고 했는데, 그 段階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인가? 그 단계를 줄이면 消費者 價格을 좀 더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릴 때 돼지를 동네에서 잡아서 斤으로 달아서 나누어 먹었는데, 그 때는 中間流通段階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요즘 근대화되고 현대화됐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복잡하게 나누는 바람에, 衛生, 稅金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겠지만, 누가 뒤집어 쓰느냐 하면, 결국은 消費者인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 뒤집어 쓰는 것이다. 이 뒤집어 쓰는 단계를 좀 줄이면 價格이 조금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消費者와 生産者가 직결되는 方法, 그러니까 消費者와 生産者는 이런 점에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빨리 악수를 해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야 하겠다.

또 하나는 加工食品 문제인데, 나는 돼지고기 파동이 나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소세지, 베이컨 등이 생산되는데, 돼지고기가 아니라 나물이라 할 정도로 아우성이 났는데도 加工食品은 더 늘어나지 않고, 소세지의 內容物을 보면 豚肉, 其他肉 75%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소세지에 왜 돼지고기를 90%쯤 넣지 못하는지 모르겠고, 또 베이컨은 100%가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 값이 그렇게 내렸을 때도 베이컨 값은 조금도 안내리고 오히려 올랐다. 이런 것은 만일에 가공업자와 生産業者가 잘 이야기되면 貯藏食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쌀 때 많이 가공해 두었다가 우리에게 쌀 값으로 많이 팔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도 내리는 것은 없고, 소세지에 돼지고기가 더 많이 섞인 예도 없다. 그런 것을 보면 돼지고기가 흘러 넘치는 것은 아니다. 또 흘러 넘치는 것을 충분히 吸收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우리들 消費者로서는 안전하게 싸게 먹는 것이 목표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골치 아플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사정이고, 또 生産者에게 손해나는 것을 보상해 주는 방법도 그 쪽에서 생각할 일이고, 다만 우리의 입장이 그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하시고, 나로서는 “비싼대로 마음대로 사먹어라” 하는 식의 주장에는 반대한다.

吳鳳國 (서울大教授) 畜産業이 하나의 産業으로 건전하게 發展하려면 最高学部에서 畜産學의 最高技術을 배우고 익혀서 나갈 학생들이 최소한 다른 職種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報酬가 얻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에게 畜産經營을 하라고 권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에 의해 畜産業이 건전하게 發展이 될때 消費者側도 적절한 價格으로 안전하게 食品을 供給받을 수 있을 것이다. 畜産이 건전하게 發展하기 위해서는 또 투자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總國家投融資 가운데서 農水産部門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이고, 그 중에서도 畜産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1%도 채 안됐다. 요즘에 와서 겨우 3%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다. 畜産이 새로운 産業이라면 産業으로 育成해 주기 위해서는 國際競爭力을 가질 수 있도록 生産与件을 만들어 준 뒤에 國際價格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幼兒단체의 우리 畜産業에게 기반이 단단하고 效率的인 生産을 하고 있는 레슬링 선수같은 歐美國家를 相對로 比較生産費를 따져서, 이것보다 비싸니까 쌀 것을 들여다 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어린애보고 “너는 쓸모가 없으니 죽으라” 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畜

産物이 중요한 食品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상 政府는 畜産業을 育成할 責任이 있고 과감하게 育成해야 한다.

우리나라 畜産物自給度는 1978年 기준으로 불과 60%밖에 되지 않는다. 가까운 日本은 70%를 넘고, 比較生産費를 따져서 生産物에 대한 交易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EC도 畜産物의 自給率은 70% 이상이다. 安保的次元에서 한 國家에서 필요로 하는 量의 70%는 자기나라에서 生産해 먹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畜産物自給度는 60%도 못미치고 더우기 모자라는 畜産物을 더 들여다 먹는다고 한다면 아마 50%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價格政策은 消費者側面의 價格政策과 生産者側面의 價格政策이 合理的으로 調和될 때 바람직한 價格政策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다고 할때 價格政策은 ①生産性を 提高시키는 方向, ②農家 自体의 所得增大 方向, ③畜産物市場의 安定化, ④畜産物量의 安定供給, ⑤消費者保護價格의 維持 등 다섯가지 基本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消費者保護 위주의 價格政策이지 生産性效率提高, 安定供給 繼續이라는 生産者側面의 價格政策은 아니었다.

다음은 畜産物의 種別 需給問題인데 우리같이 못사는 나라가 꼭 비싼 쇠고기를 사다가 國民에게 보급을 해야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價格은 돼지고기 價格보다 적어도 2.5~3배가 비싸다. 가능하다면 돼지고기, 닭고기처럼 보다 값싼 고기로 營養供給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쇠고기를 自体供給할 수 있는 最大量을 供給하고 모자라는 量은 들여오되 가능하면 값싼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쇠고기값이 비싸더라도 소의 頭數는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 소는 새끼를 1마리밖에 낳지 않고 암수 比率도 반반이기 때문에 增殖이 어렵고 아울러서 生産費도 많이 든다. 그러나 돼지와 닭은 얼마든지 增殖이 가능하고, 集約적으로 大量生産이 일시에 가능한 品目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不安한 價格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값과 닭고기값이다.

이렇게 볼때 모자라는 肉類量은 生産이 빠른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충당하고, 잉여량은 畜産振興會가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收買하고 備蓄하고 加工할 수 있는 基盤을 造成해 줌으로써 供給適應의 機能을 다해야 할 것

이다.

다음은 消費問題인데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消費者教育이 반드시 앞서야 되겠다. 왜지, 닭고기가 쇠고기에 비해 嗜好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웃 台灣에서는 모든 고기 消費量의 약 60~65%를 돼지고기가 차지하고 있고, 美國에서도 닭고기를 국민 1인당 年間 25kg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불과 2kg밖에 먹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料理나 加工을 잘한다면 돼지고기 닭고기를 안먹을 리가 없는 것이다. 가능하면 消費助長을 위해서 國民들에게 料理方法이나 營養價 같은 것을 教育도 해야 될 것이며 우선 여러가지 다양한 食品을 生産해서 消費者에게 供給할 수 있는 体系로 빨리 轉換해야 되겠다.

아울러 生産과 供給과 消費, 이러한 3가지 機能을 短期 또는 長期에 걸쳐서 統合, 企劃내지는 對策을 마련할 수 있는 調整機構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같은 機能을 合理化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強力한 生産者團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農協가운데 畜産協同組合이 特殊組合이라고는 하지만 畜協의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生産者組織이 이루어져야 共同購販을 할 수 있고, 아울러 生産過剩됐을 때의 調整業務도 그러한 기구가 있음으로써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政府에 바라고 싶은 것은 하루속히 강력한 生産者團體를 育成하여 그 生産者組織이 중심이 되어 系列化함으로써 중간 마진을 없애고 消費者에게 값싼 畜産物을 供給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黃永球(韓國種畜改良協會長) 우리나라의 畜産業이 과연 自給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나는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草地開發用으로 해발 500~600m이하의 山地는 다 개방을 해야 된다. 100萬정보만 개방을 한다면 100萬頭의 소를 入殖시킬 수 있다. 스위스나 뉴질랜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외국사람들도 우리나라의 山地를 보고는 목축의 파라다이스라고 경탄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農水産部가 쌀 생산에만 주력하다 보니 畜産業의 예산책정액은 20億원밖에 안되고 있다. 20億원 가지고 뭘 하겠는가. 쌀 생산에는 포상비만도 27億원이나 되지 않는가. 쌀 생

산하는데는 포상비만 27 億원인데 畜産物은 20 億원을 가지고 자급하라는 것은 넌센스이다. 政策的으로 畜産이 自給을 달성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옥수수 250 萬톤인가 260 萬톤인가를 들여 왔다. 石數로는 1,500 萬石이나 1,800 萬石이 되며, 돈으로도 3 億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3 億달러라면 지금 환율로 1,800 億원인데 그걸로 옥수수를 사다 먹인 결과 돼지고기가 남아서 農家에서 손해가 간다면, 이것은 어딘가 잘못 된 것이다.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畜産의 경제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畜産振興會가 있고 農協中央會 밑에 畜産協同組合이 있지만 기능이 分散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農協中央會는 畜産協同組合이 자기네 단위조합 식으로 대우해야 할텐데 업무도 특수 취급하고 관리도 특수 취급해서 발달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畜産協同組合은 양측가의 경제 단체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畜産振興會를 발족시켰으나, 畜産振興會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자립기반은 일부 農協이 가지고 있고, 일부는 農漁村開發公社가 갖고 있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畜産振興會를 중심으로 해서 水産協同組合이나 山林組合聯合會나 農協中央會와 같은 畜産經濟團體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00 萬頭의 돼지가 있는데, 그중 25 萬頭만 새끼를 낳는다면 頭當 10 마리의 새끼를 낳아 삼시간에 250 萬頭로 늘어난다. 이러한 돼지 繁殖生理上 돼지값 波動은 오게 되어 있다. 日本만 해도 生産된 돼지고기의 45% 정도를 加工하고, 美國은 60%를 加工한다. 繁殖生理上 增産되는 것은 언젠가 價格이 떨어지고, 價格이 떨어지면 生産이 준다. 이에 대비해서 남는 量을 政府가 收買하든가 자금 지원을 해서 加工業者로 하여금 收買토록 해서 돼지고기 供給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해서 加工, 저장해야 한다.

趙誠煥(西江大教授) 輸入을 하느냐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꼭 필요하지만 絶對量이 부족하다든지 國內生産이 안된다면 할 수 없이 輸入을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獨寡占 工産

品目を 정부가 일일이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입을 개방하여 價格引上을 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工業品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農産品에만 적용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이야기인 동시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선 우리가 農業을 하나의 産業으로 보고 이것을 保護育成할 것이냐 않을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가 과거에 工業部門을 성장시키고 보호한 것과 꼭 같은 원리를 農業部門에도 적용한다면, 우선 농업은 반드시 보호되고 育成되어야 하지, 獨寡占 工業品의 輸入을 규제하는 政策과 같은 思考方式은 정부 어느 구석에라도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工業 패권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도 상당히 많아 農業을 주축으로 하는 成長政策을 다시 재건하지 않으면 안되는 轉換期에 온지 이미 오래되었다. 과거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美國에서 剩餘農産物을 갖다가 역시 剩餘勞動力을 사용해서 勞動集約的인 상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수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을 그 동안 쪽 밀고 왔었고, 또 상당히 高度의 成長을 했다. 그러나 오늘은 剩餘勞動力도 별로 없고, 剩餘農産物도 우리가 援助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오는 입장이므로 工業化政策내지는 經濟發展 전체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어떠한 産業을 기준으로 보호해야 하느냐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國民經濟 전반에 미치는 — 소위 經濟學에서 말하는 — 外部效果가 큰 것일수록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

앞으로 에너지 코스트가 계속 올라갈 것이므로, 農産品이 반드시 美國과 같은 나라에서 생산해야만 比較優位가 있다는 것도 앞을 내다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單位 農産物生産당 에너지 消費量이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최대 한도를 넘고 있다. 그러므로 후진국가 지역에서도 에너지 戰略이라는 측면에서 農業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動態的인 입장에서 길게 볼 때 比較優位는 國際價格의 변동이나 혹은 예

너지價格의 暴騰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있다는 展望까지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尹熙辰(第一種畜農場長) 쇠고기는 모자라서 輸入을 해야 되는데 돼지고기는 남아서 상당량을 버리든가 아니면 혈값에 팔아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것 같다. 따라서 쇠고기를 지금보다는 조금 비싸게 해서 需要를 줄이고 쇠고기 需要의 상당부분을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부터 쇠고기만 먹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70年代 초까지는 닭고기 소비가 상대적으로 늘다가 그 후 값싼 쇠고기가 많이 輸入되자 상대적으로 쇠고기의 需要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자료에는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옛날부터 쇠고기만 많이 먹고 돼지고기는 적게 먹은 것은 아니고, 다만 價格政策 등 여러가지 여건이 그렇게 만든 것 뿐이다. 돼지고기는 國內에서 충분히 自給이 되고 77年8月까지는 남아 돌아서 상당량이 輸出되었다. 또 價格面에서 돼지고기는 國際競爭力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지고기로 쇠고기를 상당량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다른 고기와 틀려서 고기와 脂肪이 따로 分離가 되므로 脂肪을 벗기고 고기만 먹든지 비계하고 같이 먹든지 선택이 가능하며, 加工類品으로서도 적합하다. 工產品의 경우에는 生産者側에서 마케팅까지 장악하기 때문에 生産者가 利得을 많이 보면 消費者의 負擔이 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畜産物의 경우는 中間流通過程에 있어서 生産者의 權益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消費者價格이 결정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養豚業界를 대표해서 돼지고기 需給 및 價格政策의 측면에서 세 가지 문제점만 간단히 말해 보겠다.

작년도의 사상 유례없는 돼지고기 파동은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台灣, 日本, 또는 멀리 美國, 캐나다에서도 상당한 養豚不況이 있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1月부터 12月까지 돼지고기 값은 일직선으로 떨어졌다. 年初價格 1,300 원이 年來에 400 원 未滿으로 떨어졌으니 1/3로 폭락한 것인데, 이런 예는 다른 工產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왜 이처럼 價格과 供給量에 차이가 났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작년도 하고 비슷한 상황이 74年度에도 있었다. 73年度에 돼지 숫자

가 많이 늘었는데 1次 오일쇼크와 美國의 飼料穀物の 凶作이 겹쳐 사료값이 2倍이상 뛰으로써 養豚業者의 태반이 망했다. 이 사람들은 돼지를 팔아 치우면서 "다시는 돼지를 키우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고, 그 때문에 그후 몇년동안 상당히 비싼 돼지고기를 먹어야 했다. 78年度의 돼지값은 평균 農場渡 價格이 1,100 원선으로 전년도인 77年度에 비해 44%가 오른 가격이다. 그 당시 原價가 600 원 선이었으니까, 매출액에 대한 이율이 40%가 되었으며, 경영을 잘한 農場은 50%까지도 되었다. 日本의 경우에는 肥肉豚 經營에서 이익율을 5%보고, 繁殖豚의 경우에 13.1%를 본다 그해 우리나라에서 돼지 1마리에 많이 번 사람은 80달러 정도를 벌었는데, 이웃 日本의 농민은 고작 8달러를 벌었다. 그 여파가 당장 다음해에 온 것이다. 養豚이 技術所得이 아닌 投機로 변한 것이다. 鉞山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자동차 운전하던 사람도 닭이나 소 키우던 사람도 모두 養豚을 하겠다고 뛰어들다 보니 결국은 파국이 온 것이다.

또 전년도에 돼지고기가 모자라서 輸入을 하게 되니까 政府도 養豚에 資金支援을 하게 되었다. 이것도 돼지 숫자를 급격히 늘게한 要因이었다. 그 결과 78年末에 171萬頭였던 돼지가 불과 6개월만에 317萬頭로 늘어난 統計숫자가 나왔다. 과연 6개월만에 85%씩 늘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지만, 價格하고 供給量하고 食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78~79年度 초까지 암돼지는 거의 전부 交配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農業에서 규모의 영세성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돼지의 경우에서도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사상 돼지頭數가 최고로 많이 늘었던 작년 9월달에 돼지가 327萬頭가 있었는데 그때 飼育戶數가 80萬5千戶이었다. 호당 4.1頭가 되는데, 이웃 日本의 경우는 작년에 戶當 60頭가 넘었다. 여하튼 19마리 미만을 키우는 사람이 79萬戶이며 전체 숫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50~5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18%, 그 다음에 500頭 이상의 專業, 또는 企業養豚이 겨우 10%를 조금 넘는 정도다. 한 두마리 키우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한마리 키우던 사람이 두마리 키우면 200%가 된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政府에서 生産基盤을 造

成하는 것도 좋지만 流通過程改善에 더 注力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肥肉資金이라 해서 한집에 돼지 5~10 마리 키울 자금을 융자해 줘야 당장 값이 오를 때는 사육하지만 좀 지나면 다 처분해 버리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 그 다음에 專業내지 대단위 사육의 문제인데, 專業農場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農民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500頭 이상 사육자는 10% 미만이고 소규모 사육자는 免稅 혜택을 받지만 專業養豚家は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이웃 台灣의 경우는 原糖을 파는 台灣糖業公事가 수익금으로 전국 22개 農場에서 50萬頭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일반 農民이나 農場에서 生産하는 돼지에 대해 檢定도 해 주고, 種豚을 구입할 경우 반이상의 보조를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生産이라면 種畜場이 있고, 研究系統이라면 試驗場이 있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기는 너무 힘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역할을 하려면 중규모 이상의 養豚農場이 많이 생겨야 될 것으로 본다. 養豚규모가 늘어나면 사료는 거의 配合飼料로 충당해야 한다. 飼料原料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輸入해야 하는 실정이고 보면 사료를 아껴야 하는데, 效率面에서 소규모 農家は 상당히 문제가 있다. 長点도 많겠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經濟性面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원가가 上昇하면 消費者에게도 불리해지기 때문에 專業이상의 農家를 대상으로 養豚資金이 支援되었으면 한다.

아까 觀測制度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學術的인 研究에 의한 統計가 나오면 飼育者들에게도 公開해 주었으면 한다. 統計를 취급하는 사람만 알고 덮어 둘 것이 아니라 飼育者나 기타 관련업체에 알려져 經營體系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行政系統을 통해서 무조건 줄이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통제숫자를 公開하여 스스로 조절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매년 4월에 생산자와 소비자 및 相關기관, 단체에서 安定價格, 上限價格 등을 정해서 그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生産, 流通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에 流通과 相關해서 중요한 문제는 규격화, 등급화, 정찰제이다. 連動제도 좋지만 生豚으로 팔 때 剥皮를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가 있다.

加工工場이 금년에 몇개 생기고, 加工으로 많은 消費가 될 것으로 보지만 작년엔 加工으로 消費된 것은 1%미만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生肉으로 消費되었다. 規格化가 되고 等級化, 정찰제가 되어야지 消費者도 보호되는 것이지 칼로 적당히 썰어서 비계를 넣고 안넣고 하면 連動制가 실시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될 것이다.

協會 이야기가 나왔는데, 協會가 겨우 작년 1월에 통합이 되어 日淺한 실정이다. 協會가 강화되어야 할텐데 政府가 資金面에서 支援을 많이 해야될 것이다. 協會가 育成이 되어야 消費 캠페인, 弘報, 調査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金榮喆 (農協中央會調查部次長) 오늘 이 協議會의 主題는 畜産物 價格上의 問題와 生産者인 畜産農民들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겠는데, 원칙적인 면에서 農水産部가 추진하고 있는 價格連動制는 대단한 발전으로 본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全畜産物 價格은 물론 農産物 價格까지도 원칙적으로 市場價格機能에다 맞겨야 될 것으로 본다.

經濟가 조그만 규모일 때는 몇 사람에게 의한 計劃經濟가 가능하지만 物量이 커지면 政府가 價格機能에 관여해서 得보는 것 보다는 오히려 害가 더 많이 된다. 政府는 價格메카니즘이 제대로 안될 때 需要, 供給面에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최소한도의 역할로 이를 보완하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農水産部에서 價格連動制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착상으로 본다.

그 다음 문제는 生産者 保護, 더 크게 나가 農民 保護에 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이 상태하에서는 農民을 아무리 철저히 보호해 준다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經濟가 발전함에 따라서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나아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社會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뒤떨어진 부분을 政策當局에서 보호해야 할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본다. 農業은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뒤떨어진 부분이다. 價格面에서 농민들은 하나도 득보는 것이 없다. 우리 經濟는 輸出主導型 經濟인데, 이 수출에서 농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政府가 발표한 GNP 통계를 보아도 전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농민이 GNP의 20

9%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농민이 제몫을 못 찾아 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현단계에서는 농민을 아무리 보호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畜産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企業化가 안되고 農民 거의 대부분이 소를 기르거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농민들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安忠榮 (中央大教授) 微視經濟的인 차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므로 巨視經濟的인 차원, 즉 農業部門에 대한 投資政策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몇 마디 하겠다. 지난 18년동안 韓國經濟의 成長戰略은 무한대로 供給이 가능했던 農業部門의 偽裝失業人口를 보다 큰 附加價值를 創出하고 雇傭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産業으로 轉用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処方으로서 輸出主導型的인 工業化政策이 지금까지 展開되어 왔다. 이러한 輸出主導型 工業政策은 雇傭擴大, 成長價值面에서 說得力과 國民的인 합의점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基本投資政策을 바꾸어야 할 중요한 轉換點에 들어선 것 같다. 그 첫번째 이유로 지금까지 무한대로 가능했던 勞動力의 供給이 서서히 主要機能部門에 있어서 bottleneck에 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두번째 이유는 石油輸入額이 금년도에 70億달러까지 된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韓國經濟가 겪어야 할 國際收支 惡化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産業構造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얼마전에 韓國開發研究院 報告書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財閥企業의 企業集中化現象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擴大되고 있다는 것, 所得分配에 관한 문제가 옛날보다 좀 더 심각하게, 經濟問題를 떠나 시대적인 문제로 등장 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要件 때문에 앞으로 韓國經濟의 기본적인 發展戰略은 새로이 再編되어야만 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投資基準인 雇傭, 成長 두 가지 價值 외에 衡平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합해져야만이 勞動生産이 向上되고, 국민적인 합의가 구축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까지 4次5個年計劃 기간 동안 가장 投資對象에서 도외시되어 왔던 부문은 말할 필요도 없이 農業部門이었다. GNP에 대한 農業의 寄与率이 23~25%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次5個年計劃 기간 동안 農業部門이

配定 받았던 政府 投資額은 9%도 안 되었다. 이와 같이 農業을 소외시킨 政府의 投資基調를 이제는 衡平, 雇傭, 그리고 成長이라는 차원에서, 內需를 진작하고 國內資源을 開發하는 방향으로 轉換하지 않으면 안될 點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畜産業은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基幹産業으로서의 중요한 가치와 평가를 정책 당국자로부터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의 投資는 草地, 野山開發 등 國內資源開發型이면서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부분,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부문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畜産業의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價格政策과 物量輸入에 원인을 돌렸지만, 기본적인 원인은 農業部門에 대한 基幹投資, 農業基盤投資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이와같은 결과가 과거 18年동안에 누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5차5개년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衡平의 입장에서 이 부문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日本, 美國 등 선진국에 있어서 産業構造가 高度化되면서 나타난 주요 업종의 하나가 食品加工業과 그리고 여러가지의 食品備蓄施設이었다. 오늘날 畜產物需給上 문제점의 하나가 備蓄施設의 不足, 加工業의 상대적인 落後性이다.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가 먹는 肉類中 1%가 加工肉이고 生肉이 99%이다.

따라서 食品加工과 備蓄施設 등 새로운 産業 部門에 대한 投資도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農水産部가 실시하려는 連動制는 一次的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政策方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畜產物은 價格自律化의 方向에서 수급이 조절되고 肉種間의 代替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開 會 辭

院長 金 甫 炫

尊敬하는 南旭 農水産部 次官, 政府機關, 學界, 言論界의 貴賓 여러분, 農畜産團體, 그리고 農民과 消費者 代表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參席해 주신 來賓 여러분, 오늘 畜産과 直接, 間接으로 關係를 맺고 있는 各界의 高名하신 人士 여러분을 모시고 畜産物 價格政策 協議會를 열게 된 것을 무한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經濟는 '70年代의 量的 膨脹에 의한 高度成長을 土台로 80年代에는 民主發展과 더불어 質的 向上을 다져 나가야 되는 새時代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經濟政策이 政府主導 아래서 이루어 졌다고 하면 80年代에는 보다 民間主導와 市場의 自律的 機能을 통하여 經濟의 效率性과 能率을 追求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時代的 要請과 經濟의 發展過程에 따라 農業도 生産과 流通 그리고 價格에 대한 政府의 機能을 보다 效果的으로 調和시켜 나가면서 生産에 農民이 全力을 기울일 수 있도록 誘導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어느 分野에 못지않게 畜産分野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畜産은 農作物과 달리 年中 生産이 可能하며, 高度의 技術을 要하고 養鷄나 養豚 그리고 酪農을 中心으로 專業내지 企業化의 速度가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轉換期農業下에서 畜産은 成長産業으로 크게 脚光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農業生産額에서 畜産이 차지하는 比重은 1961년에 5.4%에 不過했던 것이 最近에는 20.8%로 急上昇하고 있습니다. 한편 消費者의 家計에서도 食料品 支出額中 畜産物費

가 차지하는 比重은 1968 年에 10.9 %였던 것이 최근에는 14.2 %로 漸漸 增大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畜産은 農業所得이나 消費者 家計費 支出에 서 차지하는 比重이 每年 增加하는 趨勢에 놓여 있습니다.

養畜家 所得과 消費者 畜産物 支出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畜 産物 價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畜産物 價格은 季節變動뿐만 아 니라 一定한 週기로 變動하고 있으며, 例컨데 養豚은 30 個月, 養鷄는 3 年, 그리고 韓牛는 5 年週기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듯 합니다. 이러한 價 格變動은 主要肉類에 대한 消費者價格 統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傾向 을 보이고, 더욱 最近에는 養豚, 養鷄가 심한 不況에서 回復의 氣運을 되 찾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 1 月달 飼料價格 引上에 따른 生産費 上昇과 인 플레이손에 따른 消費者家計 事情으로 畜産不況이 혹 長期化되지 않을까 憂慮되는 點도 없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西歐 유럽에서도 經濟 不況이나 農業의 轉換期에는 우리보다 더한 調整의 蹉跌과 陣痛을 겪어 왔 던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한 過渡期를 거쳐 畜産은 더욱 成長해 왔고 國 民의 食糧에서 보다 重要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發展의 速度에 緩急의 差異는 있을지 몰라도 畜産이 나가야 될 다른 어떤 方向이 따로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最近 몇해동안 急速한 經濟成長과 生産適應의 遲延으로 畜産物에 대한 超過 需要가 일어나게 되자 價格이 急騰하는가 하면, 畜産物 輸入으로 養 畜家 受取價格이 急落하는등 市場의 需給과 價格의 不安定은 生産에 못지 않게 바로 生産者와 消費者의 保護 問題와 直結되어 왔습니다. 오랜동안 이와같은 經濟現象을 통해서 우리는 眞正한 生産者 保護없이는 消費者 保護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또 消費者 없는 生産이란 것도 想像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生産과 消費는 마치 銅錢의 앞면과 뒷면 같아 어느 하나를 過少 또는 過大 評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두 分野의 均衡된 保護와 發展을 위하여 對立의 關係가 아니라 相互補完의인 關係에서 虚心坦懷하게 서로의 立場을 이야기하고 討論하여 畜産業 發展은 물론 國民經濟의 均衡된 成長을 向하여 前進할 수 있는 契機의 造成이 바

로 이 協議會의 趣指인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日程에도 不拘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農水産部 次官을 비롯하여 各界 人士 여러분께 거듭 感謝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協議會가 앞으로의 畜産物 價格政策遂行과 研究發展에 劃期的이고 뜻깊은 모임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参 加 者 名 單

主題發表者

池 高 夏 (農水産部畜産局長)
朴 惠 敬 (淑明女大 教授)
尹 孝 稷 (建國大 教授)

討論參加者

司 会 : 吳 相 洛 (서울大 教授)

權英子 (主 婦)	吳鳳國 (서울大 教授)
金成斗 (朝鮮日報 論說委員)	尹熙辰 (第一種畜農場長)
金淑喜 (梨大 教授)	趙誠煥 (西江大 教授)
金栄喆 (農協中央会調査部次長)	趙春善 (篤農家)
金權喆 (農水産部 畜産課長)	崔鍾洛 (經濟企劃院物價政策1課長)
金天柱 (주부클럽中央会事務処長)	崔誠實 (韓國企業牧場協會專務理事)
宋基澈 (高麗大 教授)	黃永球 (韓國種畜改良協會長)
安忠栄 (中央大 教授)	柳允洙 (韓國畜産団体聯合會長)

畜産物 價格政策의
課題와 方向

1980年 5月 20日 發行

發行處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印刷處 :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73-2104-75-0430, 9222
